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2014-11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 2014

황인학 · 송용주



정책연구 14-11

2014. 10.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2014

황인학·송용주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Washington University(St. Louis)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인 산업조직론 외에 신제도경제학에 관심이 많으며, 이와 관련 Ronald Coase Institute 워크샵과 ISNIE(International Society for New Institutional Economics) 컨퍼런스에 종종 다니고는 했다. 최근의 주요 저서로는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100: 반세기 한국경제를 한눈에(2014)』,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2013, 공저)』, 『중·일 경제 리스크와 한국경제의 선택(2013, 공저)』, 『2013년도 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2013, 공저)』, 『2013년 정책 리스크 쟁점과 평가(2013, 공저)』, 『기업가정신(2013, 공저)』, 『규제지도 분석을 통한 기업규제 개선방안 연구』(2013, 공저) 등이 있다.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 학사, 국제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삼성전자 기획팀과 Euromonitor International에서 산업 분석을 담당했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업 관련 규제와 기업가정신 등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경제자유 관점에서 본 경제성장과 제도개혁』(2014), 『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2013),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류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2013) 등이 있다.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2014

1판1쇄 인쇄 | 2014년 10월 28일

1판1쇄 발행 | 2014년 10월 30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화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4

ISBN 978-89-8031-699-1

12,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4030722)

CONTENTS

요 약	7
I. 조사 개요	27
1. 조사 목적	27
2. 조사방법 설계	28
3. 세부 조사 항목	29
II. 주제별 조사 결과	31
1. 기업·기업인에 대한 인식	31
2.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	41
3.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	45
4. 소득과 직업에 대한 인식	49
5. 기업 활동에 대한 인식	55
6. 한국 사회 일반에 대한 인식	62
7. 경제 제도와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75
III. 조사결과의 특징과 시사점	79
[부록] 설문지 첨부	82
참고문헌	93

[표 1] 기업·기업인 이미지에 대한 과거 설문조사	28
[표 2] 2012~2014 설문 문항 비교	29
[표 3] 응답자 특성	30
[표 4] 인구 특성별 기업 호감도	33
[표 5] 대기업과 기업집단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비율	35
[표 6] 인구 특성별 기업가 및 전문경영인 호감도	36
[표 7] 직업별 본인 또는 본인 자녀가 원하는 경제활동 방식	54

[그림 1] 기업 호감도	31
[그림 2] 기업 호감도 추이	32
[그림 3] 직업별 기업 호감도	34
[그림 4] 기업집단 호감도 추이	34
[그림 5] 기업가 및 전문경영인 호감도	35
[그림 6] 반기업 정서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37
[그림 7] 반기업 정서는 기업 자체적 요인과 기업 외적 요인 중 무엇이 원인?	38
[그림 8] 국내에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38
[그림 9] 직업별 반기업 정서 원인에 대한 인식	39
[그림 10] 내년의 반기업 정서 수준 예상	40
[그림 11] 반기업 정서 완화 방안에 대한 인식	40
[그림 12] 직업별 반기업 정서 완화방안에 대한 인식	41
[그림 13]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에 대한 인식	42
[그림 14]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42
[그림 15] 직업별 경제성장의 견인차에 대한 인식	43
[그림 16] 국내 기업가정신이 미흡한 수준이다	44
[그림 17] 국내 기업가정신 수준이 낮다면 그 이유는?	44
[그림 18] 향후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수준에 대한 기대	45
[그림 19] 경제 관련 상식 습득 경로	46
[그림 20] 사업자 간 경쟁에 대한 긍정적 인식	47
[그림 21] 직업별 골목상권 내 동종업체 간 경쟁에 대한 긍정적 인식	47
[그림 22] 직업별 자동차 제조업체 간 경쟁에 대한 긍정적 인식	48
[그림 23] 우리나라 TV, 라면 등의 시장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49
[그림 24]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에 대한 인식	50
[그림 25] 대기업 경영자들은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다?	50
[그림 26] 본인 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51
[그림 27] 직업별 본인의 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52
[그림 28] 직업별 본인의 보상 수준에 대한 인식	52
[그림 29] 향후 나의 소득 수준은?	53
[그림 30] 직업별 본인의 소득 수준 예상	53
[그림 31] 본인 또는 본인 자녀가 참여하길 원하는 경제활동 방식	54
[그림 32] 기업의 경영 목표에 대한 인식	55
[그림 33] 본인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우선적으로 추구할 경영 목표는?	56
[그림 34] 기업의 이윤이 낮을 때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	57
[그림 35]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기업	58

[그림 36]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수가 많다?	59
[그림 37]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대한 인식	59
[그림 38] 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60
[그림 39]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사례가 적은 이유?	61
[그림 40]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우리 사회에 맞다?	62
[그림 41] 직업 호감도 및 신뢰도	63
[그림 42] 27개국 직업별 신뢰도 평균	64
[그림 43] 국가별 정치인 신뢰도	65
[그림 44] 국가별 신뢰도 종합지수	65
[그림 45] 국가별 기업 신뢰도 지수	66
[그림 46] 국가별 기업 신뢰도와 정부 신뢰도 비교	66
[그림 47] OECD 및 브릭스 국가별 정부 신뢰도	67
[그림 48] 우리 사회에서 법과 원칙이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가?	68
[그림 49]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69
[그림 50] 자녀가 취직보다는 창업을 하길 원한다면?	69
[그림 51]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	70
[그림 52] OECD 및 브릭스 국가별 삶의 만족도	71
[그림 53] 앞으로 3~4년 내 삶의 질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	72
[그림 54]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과제 순위	73
[그림 55] 나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에 속한다?	74
[그림 56] 중산층 기준으로 중요한 항목의 순위	74
[그림 57] 새로운 국정과제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에 동의?	75
[그림 58] 직업별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에 동의 비중	76
[그림 59] 규제 총량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인식	77
[그림 60] 규제 총량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직업별 인식의 차이	77
[그림 61] 원격진료에 찬성?	78



1. 조사연구의 목적 및 방법

- ▶ **배경 및 목적:** 기업과 시장원리 경제 및 사회현안에 대해 국민 일반의 인식, 가치관을 조사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과 정부의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제공
 - 제도는 개인과 기업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하는 게임 규칙(rules of the game)으로 작용하며, 제도는 법령, 규정과 같은 공식 제도(formal institution)와 인식, 정서, 가치관, 관행과 같은 비공식 제도(informal institution)로 구분
 - 국민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등의 비공식 제도는 옳고 그름과 별개로 정치 과정을 거쳐 규제 법령으로 공식 제도화되는 源泉이므로 규제환경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면 비공식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높고, 정서법이 실정법에 앞선다고 하는 만큼 이와 관련 주기적 실태조사와 심층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 **조사방법:** 시계열 및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문항을 설계하고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Online Survey 실시
 - 기업관, 시장관, 경제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에 타 기관에서 조사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설문 문항을 설계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기업가정신 관련 설문조사 등 외국 자료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문항을 설계
 - 표본추출은 통상의 방법대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 할당하되 산업체 종사자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로 구분하여 이들 간 인식의 차이를 조사, 정리함.
- ▶ **조사문항:** 고정 문항과 변동 문항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하되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관련 내용을 신설, 보강

- 기업관, 시장관 등과 같이 장기 추세 분석이 필요한 사안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조사 문항을 유지하고, 경제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문항은 시의성에 맞게 수정 가감
- 이번 조사에서는 법 준수 의식, 직업별 신뢰도, 삶에 대한 만족 등 사회적 자본 관련 조사 항목을 대폭 보강하면서 조사 항목 총수가 크게 늘었음.
- 여기에서는 ①기업·기업가에 대한 인식, ②반기업 정서의 수위와 원인, ③경제성장과 기업가정신, ④기업의 본질과 목표, ⑤시장원리와 경제현안, ⑥사회적 자본과 삶에 대한 만족도, ⑦ 경제제도 및 정책 현안의 순서로 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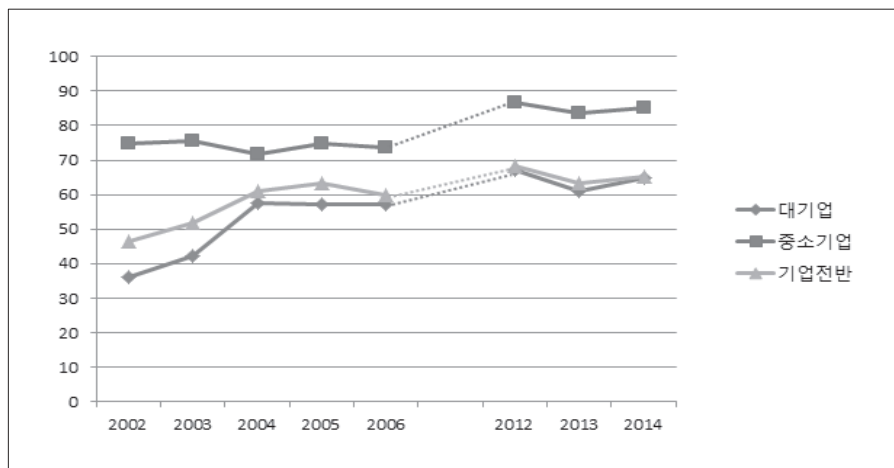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요약

가. 기업·기업가에 대한 인식

▶ 기업 호감도: 기업 전반에 대해 호감 표명 응답은 65%, 비호감 표명 응답은 35%

- 대기업을 좋게 생각한다는 긍정 응답이 2013년 61%에서 2014년 65%로 증가한데 힘입어 기업 전반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의 63%에서 금년에는 65%로 증가
- 기업형태별 호감도는 중소기업(85%) >> 대기업(65%) >> 공기업(45%) >> 기업집단(32%)의 순서이며, 공기업 호감도는 매년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기업 호감도 조사결과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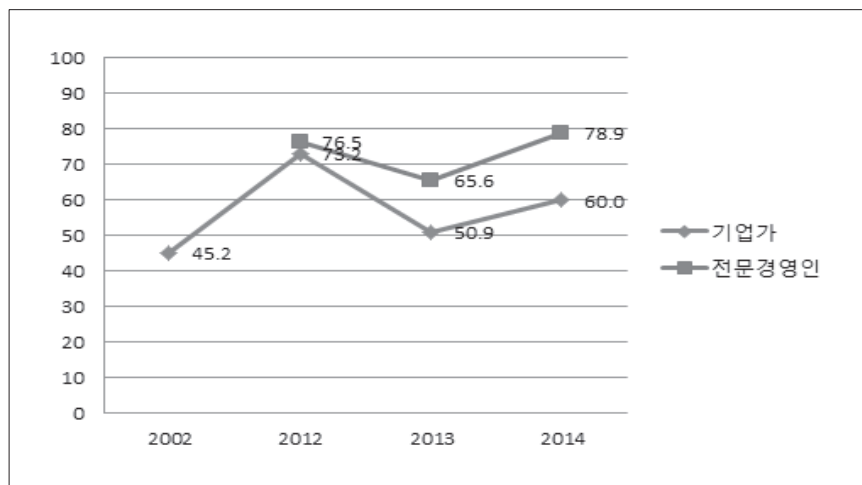
주: 2002년·2012년 결과는 KERI, 2003년·2006년은 중앙일보, 2004년·2005년은 전경련 조사결과

- 기업 전반에 대한 호감도는 연령별로는 3~40대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고(57% 내외) 직업별로는 공무원 계층에서 가장 낮은 것(58%)으로 나타남.
-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비호감 응답이 68%로 아직은 높고, 40대와 전문직 종사자의 비호감 응답이 각각 78%와 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기업 종사자 중 약 20%가 대기업에 비호감을, 중소기업 종사자 중에서 약 20%가 중소기업에 비호감을 표명하고 있음.

▶ 기업가 vs. 전문경영인: 우리나라 국민은 기업가보다 전문경영인을 긍정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기업가 호감도는 지난해의 51%에서 금년에는 60%로, 전문경영인 호감도는 66%에서 79%로 크게 상승했으나 호감도 격차는 지난해의 15%p에서 19%p로 확대
- 기업가 호감도를 연령대로 보면, 20대에서 가장 높고(70%) 40대에서 가장 낮으며(50%), 직업별로는 무직/기타에서 높고(63%) 공무원에서 가장 낮음(52%)
- 전문경영인 호감도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고(85%) 30대에서 가장 낮으며(75%), 직업별로는 역시 무직/기타에서 가장 높고(80%) 공무원에서 가장 낮음(74%)

〈기업가 및 전문경영인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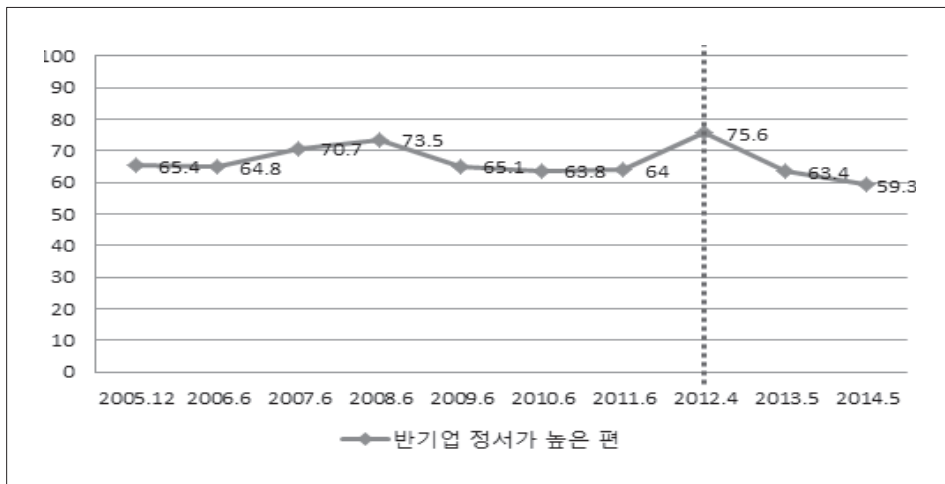


나. 반기업 정서의 수위와 원인

▶ 반기업 정서의 수위: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가 높다는 의견은 59%

- 반기업 정서가 높다는 의견은 본원에서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본 조사와 똑같은 질문을 사용하는 대한상의 조사결과와 연결할 경우 반기업 정서의 수위는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 그러나 응답자의 주관적인 기업 호감도(65%)와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에 대한 제3자적 인식(59%)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반기업 정서가 높다는 의견은 여성(51%)보다 남성(67%)에서, 직업별로는 대기업 종사자(71%) >> 공무원(66%) >> 자영업자(64%) >> 중소기업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59%) >> 무직/ 기타(56%)의 순서로 나타남.

〈반기업 정서 조사결과와 연도별 추이〉



주: 2005년~2011년 결과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호감도(CFI) 보고서 내 '국내 반기업 정서 수준' 참조

▶ 반기업 정서의 원인: 조사 결과, 기업 내부 요인과 외부환경 요인이 비슷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음

- 전년에 비해 기업 자체의 원인(45%→39%)과 외부환경 요인(23%→16%)을 지적인 의견은 감소하고 양자가 비슷하게 작용한다(32%→45%)는 의견은 크게 증가
-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과 중소기업 종사자는 반기업 정서의 원인에 대해 기업 자체

의 문제를 1순위로 지적한 반면(각각 44%, 42%), 대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내·외부 요인의 복합효과를 1순위로 지적(각각 47%, 46%)

- 특히 공무원 직업군에서 반기업 정서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 자체의 문제를 지적한 응답이 작년의 35%에서 금년에는 44%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특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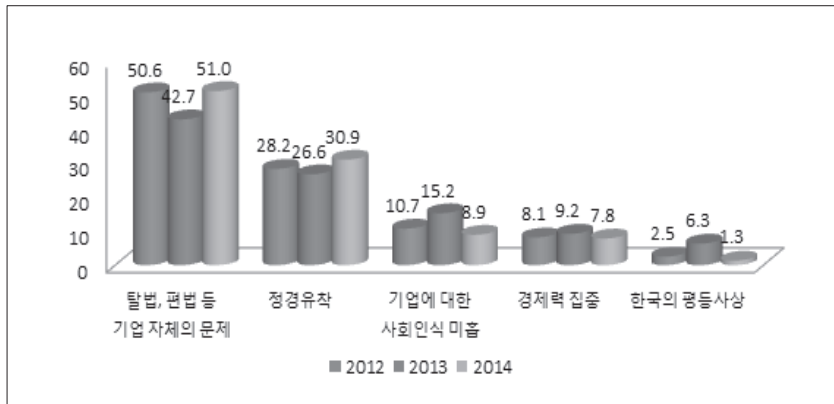
▶ 반기업 정서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탈법·편법(51%) > 정경유착(31%) > 사회적 인식 미흡(9%) > 경제력집중(8%)의 순서로 응답

- 전년에 비해 탈법·편법, 정경유착을 주된 원인으로 보는 의견은 증가한 반면, 사회적 인식의 미흡과 평등사상을 지적한 의견은 크게 감소

- 탈법·편법을 반기업 정서의 요인으로 지적한 의견은 연령대별로는 20대(58%) > 40대(54%) > 30대(52%)의 순서로 높고 직업별로는 무직/ 기타(55%) > 중소기업 종사자(51%) > 전문직 종사자(48%)의 순서로 높음.

- 정경유착의 문제를 지적한 응답은 자영업자(42%)에서 가장 많았으며, 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미흡을 지적한 응답은 대기업 종사자(1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반기업 정서의 원인에 대한 인식〉



다. 경제성장과 기업가정신

▶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으로 기업가정신을 꼽은 의견은 9%에 불과한 반면, 향후 우리나라가 지속 성장을 하려면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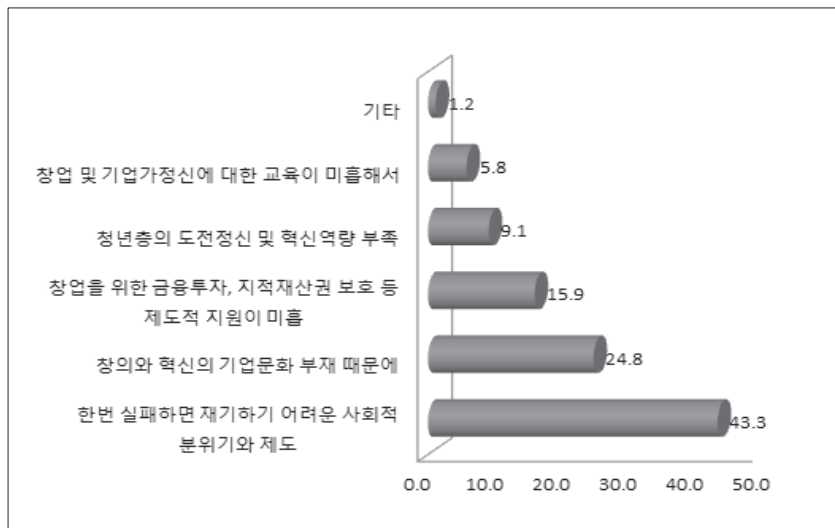
- 지난 60년 동안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으로 근로자의 근면성실(46%)과 정부 주도 정책(26%)을 꼽은 의견이 많고 기업가정신을 지목한 응답은 9%에 불과

- 근로자의 근면성실 응답은 40대와 대기업 종사자에게서 각각 56%로 가장 높고, 정부 주도 정책 응답은 50대와 공무원 직업군에서 각각 33%와 31%로 가장 높음.
- 과거의 성장 동인에 대한 평가와 달리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민 일반의 기업가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가정신 수위와 저조한 원인: 현재의 기업가정신에 대해서 55%가 미흡하다고 보는 한편, 실패의 두려움이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

- 기업가정신이 미흡하다는 응답은 60대에서 가장 낮고(48%) 30대에서 가장 높으며 (63%), 직업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공무원 계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59%).
- 기업가정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문화와 제도 때문이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창 의와 혁신의 기업문화 부재(25%) >> 창업지원 환경의 미흡(16%) >> 도전 및 혁신역량 부족(9%)의 순으로 응답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낮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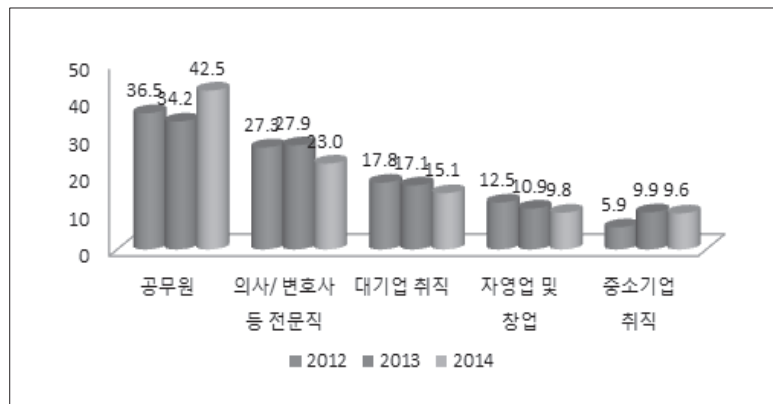


▶ 안정적인 직업 선호 성향: 기업가정신이 미래 성장 동인이라는 응답이 많았음에도 직업 선택시 도전보다는 안정을 우선하며, 공무원 직업의 선호도는 대폭 증가

- 본인 또는 자녀의 경제활동 참여 방식 선호에 대해 공무원(43%) >> 전문직(23%) >> 대기업(15%) >> 창업·자영업(10%) >> 중소기업 (10%) 순으로 응답

- 과거에 전문직을 가장 선호했던 전문직과 대기업 종사자조차 금년에는 공무원 직업 선호로 경향이 바뀌면서 공무원 직업 선호도가 작년 대비 9%p 상승하였음.
-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연금소득 면에서 유리한 공무원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본인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공무원 직군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보상 만족도가 18%p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공무원의 보상 만족도: 노력에 비해 많이 받는다(9%) + 노력한 만큼 받는다(50%)
 - 전체 응답자 평균: 노력에 비해 많이 받는다(5%) + 노력한 만큼 받는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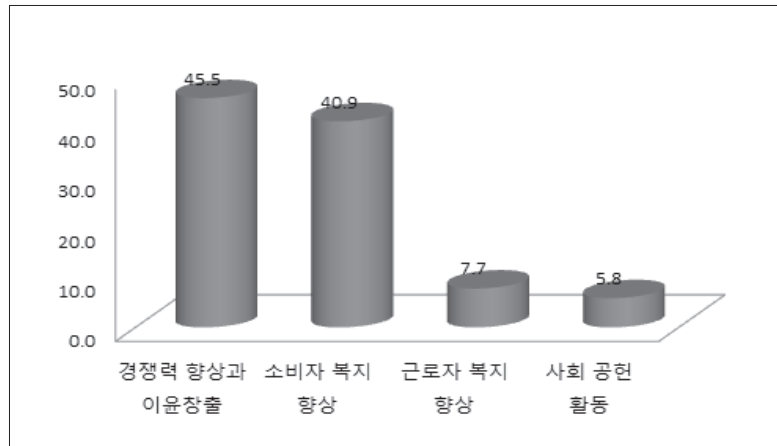
〈선호하는 직업의 우선순위〉



라. 기업의 본질과 목표

- ▶ 기업의 경영목표: 일반 국민의 46% 가량이 경쟁력 향상과 이윤 창출이라고 응답, 소비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도 41%로 높게 나타남.
 - 경쟁력 향상과 이윤창출이라는 응답은 대기업 종사자(55%)와 중소기업 종사자(52%)에서, 소비자 우선 응답은 60대 이상(4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경영목표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8%와 6%로 저조하며, 이러한 경향은 진보적 정치성향 집단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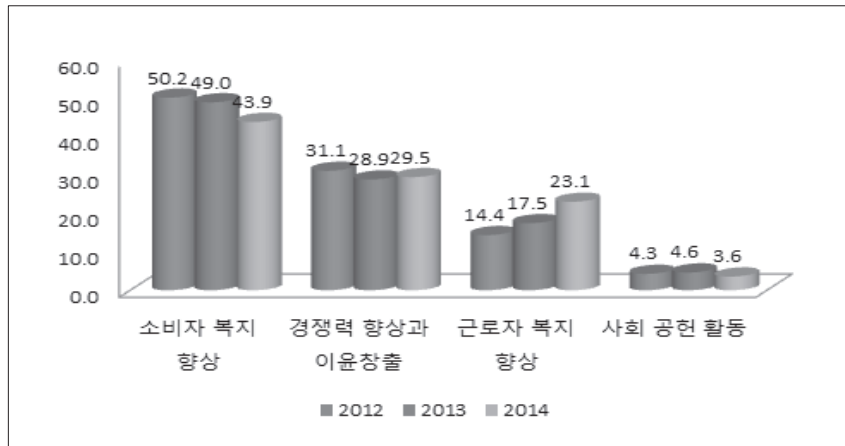
〈기업의 경영목표에 대한 인식〉



▶ 본인의 기업 경영목표: 만약 본인이 기업을 한다면 추구할 경영목표로는 소비자 만족이 44%, 경쟁력 향상과 이윤창출 30%, 근로자 복지 향상이 23%로 나타남.

-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윤창출이라는 응답은 남성(34%), 20대(33%), 대기업 종사자(39%)와 공무원(38%)에서 높고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
- 전년과 비교할 때 소비자 우선 응답은 49%에서 44%로 줄고, 근로자 우선 응답이 18%에서 2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
- 근로자 우선 응답을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 직군(16%)에서 가장 낮고 중소기업 종사자(2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일자리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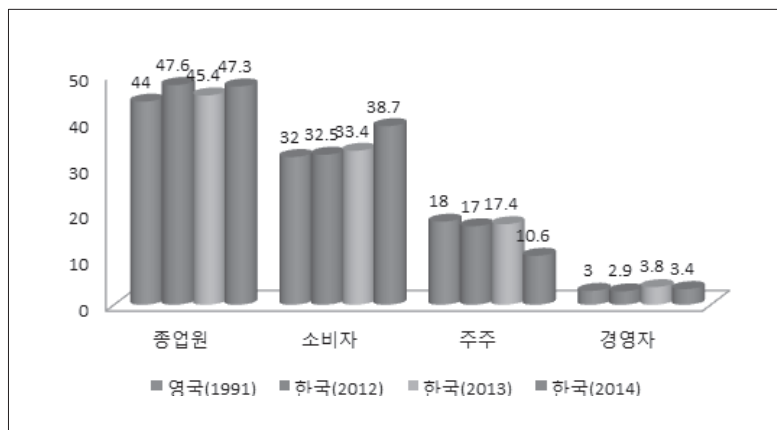
〈본인의 기업 경영목표〉



▶ 기업 이윤 배분의 우선순위: 기업의 이윤은 종업원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 소비자라는 의견은 39%로 증가한 반면 주주는 11%로 감소

- 기업 경영의 목표는 경쟁력 향상이고 본인이 기업을 한다면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윤은 종업원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이름
- 대·중소기업 종사자(임금 근로자)의 약 57%가 종업원 우선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공무원과 자영업자는 종업원보다 소비자 우선 배분(48%)을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
- 기업의 이윤을 주주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해의 17%에서 금년에는 11%로 크게 떨어져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1991년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도 기업 이윤의 주주 우선 배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기업 이윤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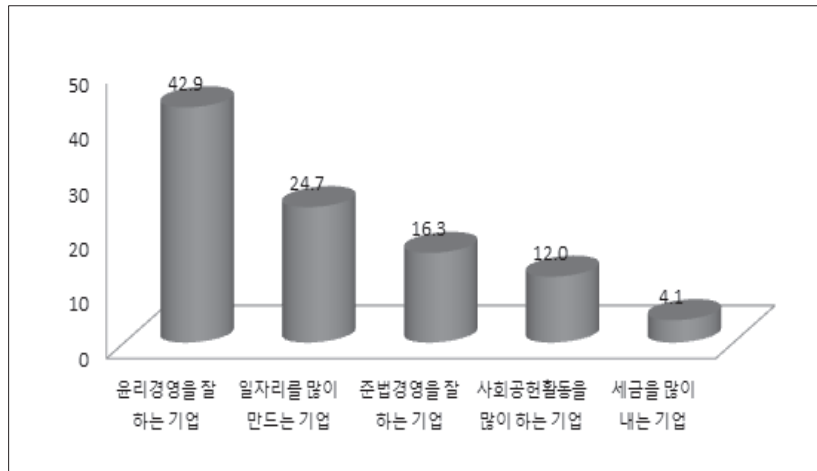


▶ 바람직한 기업상: 윤리경영을 잘 하는 기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3%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사회공헌 책임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윤리적 책임(43%) >> 경제적 책임(25%) >> 법률적 책임(16%) >> 사회공헌 책임(12%)의 순으로 응답
- 윤리경영이라는 응답은 공무원(52%)과 대기업 종사자(51%)에서 높은 반면에 60대 이상(32%)에서 가장 낮으며,

-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으로 일자리 창출(31%)과 준법경영(24%)을 강조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기업에 대한 인식〉



마. Economic IQ: 시장원리와 경제현안

▶ 경제 정보 습득 경로: 절반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종이 매체 의존도는 감소

- 인터넷을 통해서 경제 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49%로서 전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p 증가하였고 방송 의존도는 전년과 유사하게 36% 수준
- 신문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2012년(17%) ⇒ 2013년(15%) ⇒ 2014년(11%)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그나마 자영업자의 신문 의존 비중(17%)이 비교적 높은 편
- 여성은 방송(46%) ≫ 인터넷(43%) ≫ 신문(7%)의 순인데 비해 남성은 인터넷(55%) ≫ 방송(25%) ≫ 신문(16%)의 순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높고(20대: 66% ⇒ 60대 이상: 27%), 연령이 높을수록 방송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20대: 20% ⇒ 60대 이상: 55%)

▶ 시장경쟁: 대기업 간 경쟁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긍정, 골목상권 경쟁에 대한 긍정 응답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절반이 넘는 58%를 유지

- 대기업의 신규진입에 대해 작년과 유사한 7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격 하락 효과 등 소비자 이익 중시(58%) 관점이 산업정책적 관점(기술혁신; 17%)에 우선

- 그러나 치킨, 편의점, 빵집 등 골목상권 내 동종업체 간 경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골목상권 보호 논쟁과 내수 침체의 여파로 작년의 62%에서 58%로 감소
- 골목상권 경쟁에 대한 긍정 인식은 자영업자(61%→ 47%)와 공무원(76%→ 63%)에서 크게 감소. 그러나 공무원의 긍정 인식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수준

▶ **가격: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의견은 20%에 불과**

- TV, 라면 등의 시장가격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응답은 작년의 18%에서 20%로 유의미하게 증가 하였으나 공급자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44%로 가장 많음.
- 공급자가 결정한다는 응답은 여성(38%)보다는 남성(51%)에서 더 높고, 직업별로는 공무원(54%) > 중소기업 종사자(52%) > 대기업 종사자(51%) 순으로 나타남.

▶ **경제력집중: 대기업이 많다는 의견은 59%, 경제력집중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71%**

-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많다는 의견은 전년 대비 약간 줄었으나 59%에 이룸.
- 대기업 수가 많다는 응답은 30대(63%)와 중소기업 종사자(63%)에서 가장 높고, 대기업 종사자와 공무원 계층(각각 53%)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높아서 문제라는 의견은 작년보다 증가(65%→ 71%). 특히 20대(77%)와 30대(75%)의 젊은 계층에서 그리고 공무원(77%)과 중소기업 종사자(75%) 사이에서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남.

▶ **임금과 소득: 10명 중 9명꼴로 대기업의 임금은 높고 중소기업 임금은 낮다고 인식하며, 본인의 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고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

- 대기업 임금이 높다는 응답은 94%, 중소기업 임금은 낮다는 응답이 88%이며 대기업 CEO는 기여에 비해 보상이 많다는 의견이 61% → 74%로 전년보다 증가
- 본인의 소득수준은 ‘낮다’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84%이나 남성(83%)보다 여성(86%)이 높고, 직업별로는 중소기업 종사자(89%)와 자영업자(87%)에서 높으며 대기업 종사자(56%)와 공무원 계층(71%)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향후 나의 소득 수준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2%이며, 향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26%)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12%)에 비해 높지만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 3년간 증가하는 추세(8% → 9%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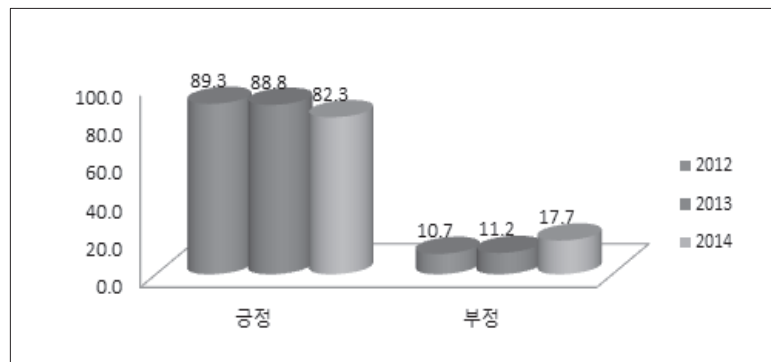
- 본인의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응답은 평균 59%이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64%) >> 중소기업 종사자(63%) >> 전문직 종사자(57%) >> 대기업 종사자(53%) >> 공무원(41%)의 순으로 조사됨.

바.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인정: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맞다는 응답이 82%

-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82%로 높은 수준
- 직업별 인식의 차이가 없으나 젊은층(20대 87%, 30대 86%)에서 위 속담에 동의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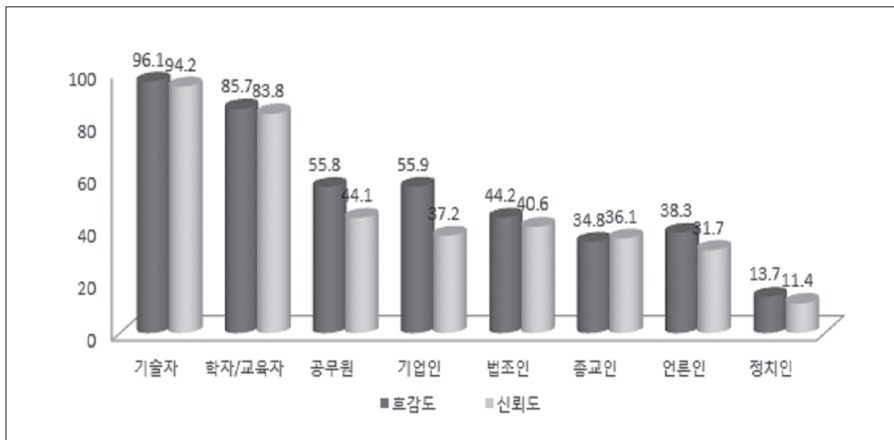


▶ 직업별 신뢰도: 기술자와 학자에 대한 호감 및 신뢰가 높고 정치인이 가장 낮음.

- 직업별 호감도는 기술자(96%) >> 학자(86%) >> 기업인(56%) ≒ 공무원(56%) >> 법조인(44%) >> 언론인(38%) >> 종교인(35%) >> 정치인(14%)의 순으로 분포
- 직업별 신뢰도는 기술자(94%) >> 학자(84%) >> 공무원(44%) >> 법조인(41%) >> 기업인(37%) >> 종교인(36%) >> 언론인(32%) >> 정치인(11%)의 순으로 분포
-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World Economic Forum의 조사에서 7점 만점에 2.2점으로 148개국 중 112위를 기록할 정도로 불신의 문제가 심각함¹⁾.

- 2014년도 에델만 신뢰지표(2014 Edelman Trust Barometer)에 의하면²⁾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무원보다는 기업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오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 보다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높게 나오는 특징을 보임.
- 이러한 결과의 이면을 살펴보면,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높게 평가(72%)했으며, 공무원 신뢰도를 직업별로 보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대기업 종사자 31%, 중소기업 종사자 35%) 사이에서 가장 낮은 반면, 기업인에 대한 신뢰는 공무원(32%)과 중소기업 종사자(33%)에서 낮게 나타남.

〈직업 호감도 및 신뢰도〉



- ▶ 법과 원칙의 준수: 법과 원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81%에 이룸
 -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 사회에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
 -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연령과 직업,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50대의 부정적 응답(86%)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35%) >> 법집행의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32%) >> 사법부에 대한 불신(26%)의 순서로 응답
 - 직업별로 원인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커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우리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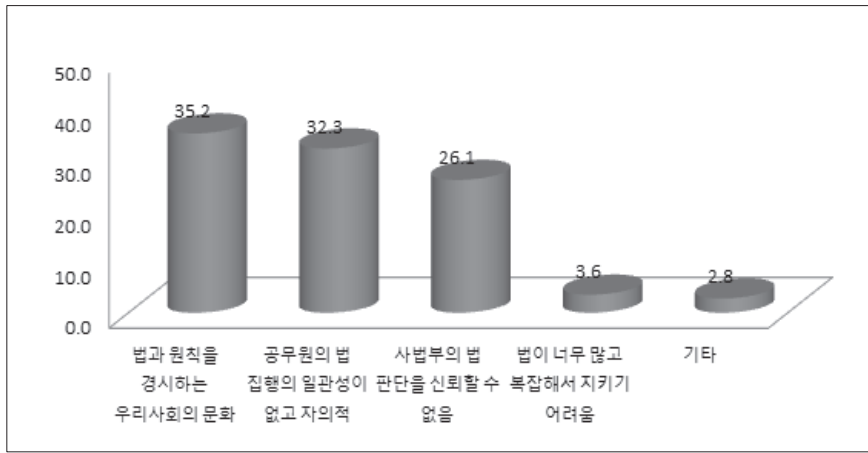
1) 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통해 국가별 경쟁력 지수를 발표. 2013~2014년 보고서에서는 14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한국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파키스탄, 자메이카, 인도, 우크라이나 등과 엇비슷한 수준

2) 글로벌 PR 전문기업인 에델만은 매년 27개국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정부, 기업, 미디어, NGO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오고 있음.

의 문화(54%) >> 사법부에 대한 불신(25%) >> 법 집행의 일관성 결여와 자의성(16%)의 순서로 응답한 반면, 대기업 종사자는 사법부 불신(32%) >> 법 집행의 문제(31%) >> 문화의 문제(30%)의 순서로 응답

- 이 밖에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공무원 법 집행의 문제로 인해 법과 원칙이 잘 안 지켜진다는 의견이 34~35%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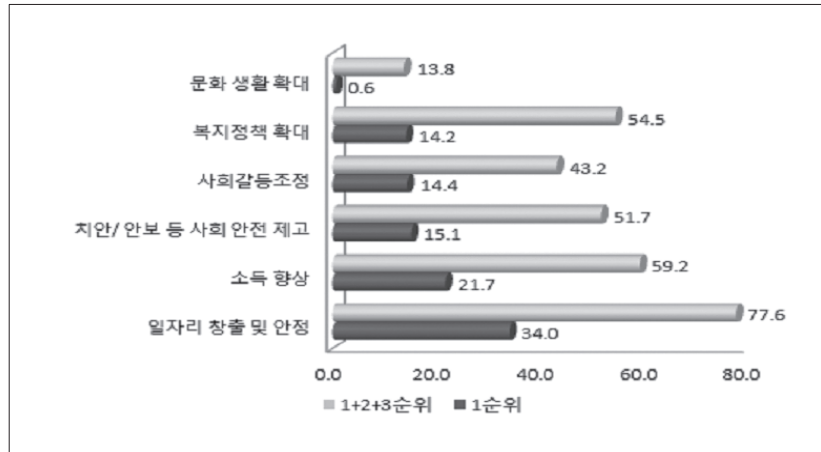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 **국민 행복: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의견 57%, 향후 삶의 질이 높아질 것 27%**

-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직업 만족도가 높은 공무원(76%)과 전문직 종사자(69%)에서 높고,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만족도(각각 49%)가 낮은 편
- 연령별로 보면 만족한다는 의견은 20대(63%)에서 높고 40대(51%)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부양책임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3~4년 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63%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나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은 27%,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은 11%
- 미래에 대한 비관적 기대는 공무원과 전문직 종사자(각각 8%)에서 가장 낮고, 일자리가 불안한 50대(16%)와 자영업자(15%), 대기업 종사자(14%)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삶에 대한 만족이 직업 안정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됨.
- 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최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안정이 34%로 가장 높고, 특히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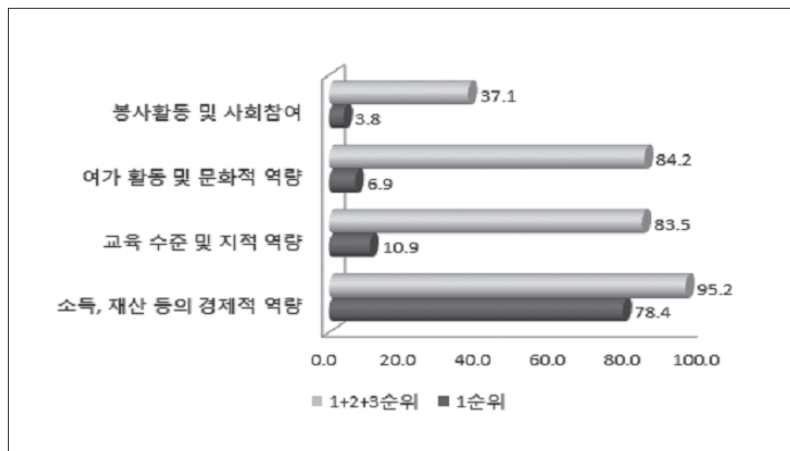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과제 순위〉



▶ 중산층 기준: ‘나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에 속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로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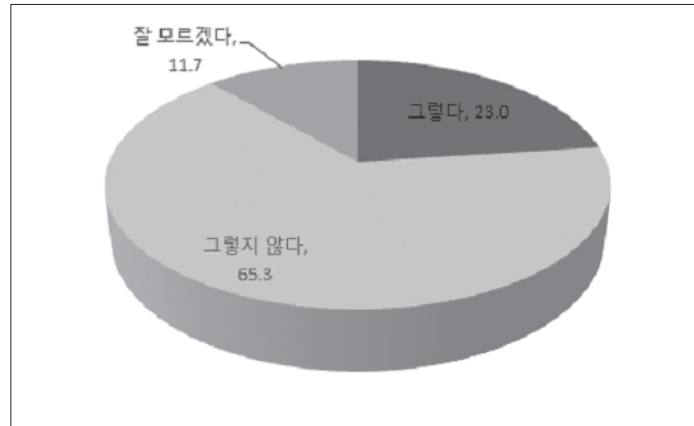
- 중산층 기준으로는 단일 기준으로는 소득, 재산 등의 경제적 역량이 78%의 압도적 선택을 받았고, 1~3순위까지 선택한 비율을 모두 합산하면 경제적 역량(95%), 여가 활동 및 문화적 역량(84%), 교육 수준 및 지적 역량(84%) 순으로 조사됨.

〈중산층 기준으로 중요한 항목의 순위〉



- 본인이 중산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5%에 이르는 가운데 30대(71%)와 중소기업 종사자(6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대체로 학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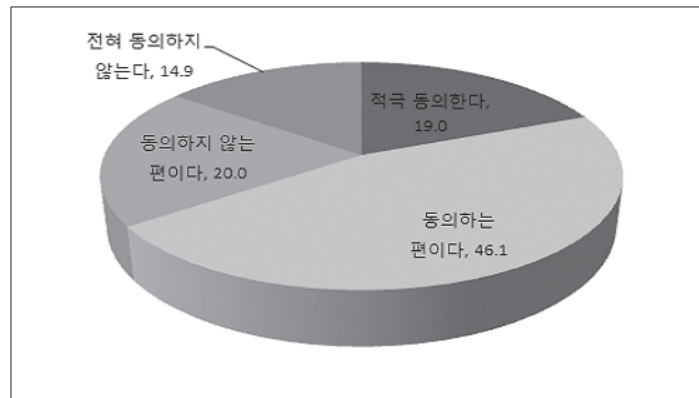
〈나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에 속한다?〉



사. 경제제도 및 정책 현안

- ▶ 국정과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에 대해 국민의 2/3가량이 동의
 - 적극 동의(19%)를 포함하여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추진에 국민의 65%가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 수준
 - 국정과제에 대한 동의 비율은 학력, 소득, 정치성향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의 비중이 뚜렷이 증가하고(2,30대: 48% ⇒ 5,60대: 78%) 직업 별로는 자영업자(75%)에서 가장 높은 반면, 공무원 직군(60%)에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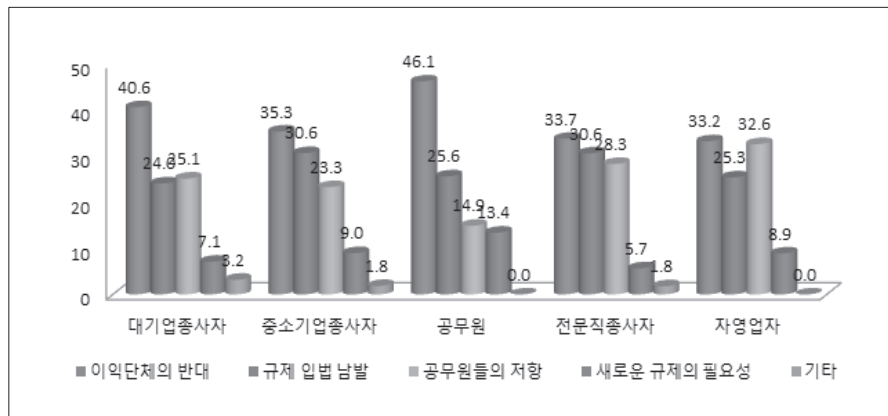
〈새로운 국정과제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에 동의?〉



▶ 규제총량 증가 원인: 규제 총량 증가는 이익 단체의 반대와 규제 입법 남발 때문

- 그 동안 규제개혁을 강조했음에도 총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이익 단체의 반대(35%)
 » 국회의 규제입법 남발(32%) » 규제집행 행정부처의 저항(24%) 순으로 응답
-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은 이익단체의 반대(46%) » 국회의 규제입법 남발(26%) » 규
 제집행 부처의 저항(15%) »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13%) 순서로 응답한 반면, 자영
 업자는 이익단체의 반대(33%) ≒ 규제집행 부처의 저항(33%) » 국회의 규제입법 남
 발(25%) »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9%)을 지적하여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인
 식이 타 직업군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드러남.

〈직업별 규제 총량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인식〉



▶ 원격 진료: 원격 진료에 찬성 61%, 반대 39%

- 원격 진료 제도에 찬성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성(66%)
 에서 높고, 연령별로는 50대(67%), 60대 이상(74%)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대기업 종사자(72%)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고 전문직 종사자(52%)에
 서 가장 낮는데, 전문직 종사자 중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 인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됨.

3. 조사결과와 특징과 시사점

- ▶ 기업·기업인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반기업 정서의 수위가 여전히 높아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이 강조되면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하였고 반기업 정서 또한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국민 10명 중 6명꼴로 반기업 정서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특히 공무원 계층의 기업 호감도는 지난 3년간 계속 하락하여 평균보다 7%p 낮은데다 내년의 반기업 정서 전망에 대해서도 악화된다는 의견(26%)이 완화된다는 의견(4%)을 상회하는 등 반기업 정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속성이 있음.
- ▶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도전보다는 안정 지향 성향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경제 IQ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한 반면에 공급자가 정한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이 많지 않음에도 많다는 의견이 59%에 이르고 있어 경제상식과 시장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필요
 - 기업가정신이 향후 경제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 현상이나 공무원 직업 선호도가 전년보다 9%p 증가하여 43%에 이르는 등 직업 선택과 같은 실제 생활에서는 도전정신보다는 안정희구 성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정년 보장과 퇴직 후 연금소득 면에서 유리한 공무원 직업 선호가 증가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문제가 오히려 공무원의 특권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 ▶ 기업경영 전략적 시사점: 임직원에서부터 기업 주변의 이해관계자에 이르기까지 기업·기업가,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반기업 정서 개선을 추진해야 함.
 - 기업 종사자 중에서도 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중이 31%(대기업 종사자) ~ 35%(중소기업 종사자)에 이르고 가격이 공급자(기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만큼 내부 임직원부터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가 호감도(60%)가 전문경영인 호감도(79%) 보다 낮고 공무원 계층의 기업가 호감도(52%)가 가장 낮음을 감안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반기업 정서의 원인으로 편법과 탈세를 지적한 의견은 51%인 반면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은 9%에 불과하고,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려면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고(46%), 시장경제교육 확대(9%)와 사회공헌활동 강화(7%)라는 응답은 소수 의견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아울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의견이 가장 많고(43%),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책임은 25%, 준법경영은 16%이며, 사회공헌활동은 12%로 가장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정책적 시사점:** 법치와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국민행복과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만큼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제도를 혁신하고 각종 비리를 척결해야 함.

- 본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는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조사한 국제비교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속함.

- 그 까닭으로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문화(35%)와 법 집행의 자의성·일관성 결여(32%), 사법부에 대한 불신(26%)을 지적하는 본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제도의 생성, 집행 및 준수, 분쟁 및 갈등 조정의 전 단계에서 제도 실패(institutional failure)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정치인은 물론이고 기업인, 공직자,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저신뢰 사회로 특징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의 확립,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 제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있음.

▶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안정을 우선하며, 국민의 약 2/3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지

- 국민의 절반가량이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 하면서도 중산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하고 본인의 소득이 낮다는 의견(84%)이 대다수이며, 향후 삶의 질과 소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

-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 및 안정을 꼽은 의견(34%)이 가장 많은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관치 않으며, 이 때 일자리는 단지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

-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2/3가 동의하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75%)에서 가장 높고 공무원 계층(60%)에서 가장 낮음.
- 규제개혁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집단, 입법부, 행정부 순으로 응답했으나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 이를 감안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함.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 2014년 국민 일반의 기업관, 시장관, 경제관을 조사하고 한국적 인식의 특징을 지난 2년간의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향후 경제제도 및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일반의 가치관, 정서 등의 비공식적 제도는 정책과 법령의 공식적 제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 일반의 기업관, 시장관, 경제관을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결과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문항 설계

- 비공식적 제도라 해도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 조사에서는 기업과 기업인, 시장원리, 경제현상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특징적 측면을 정리함.

- 특히 박근혜정부가 출범 2년차 국정 기조를 전환하여 규제개혁과 경제성장을 강조함에 따라 국정 운영 방향 및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실태조사의 특징과 기존 조사방법과의 차이점

-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조사할 내용과 시의성 있는 경제현안 및 정책에 대한 설문으로 조사문항을 구분, 설계하였음.

- 조사문항의 내용과 질문형식에 따라 응답자의 선택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전문 조사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질문내용을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음.

- [표 1]에서와 같은 기존의 국내외 조사결과를 문헌 조사하여 필요한 항목의 경우 본 실태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과거의 국내 조사결과 또는 해외의 조사결과(EU, 영국, 중국, 일본 등)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문항을 설계

- 산업체 종사자를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로 구분함으로써 이들 간 반기업

정서를 포함하여 시장관과 경제관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함.

[표 1] 기업·기업인 이미지에 대한 과거 설문조사

년도	보고서 제목	조사 주체
2002	기업, 기업인 및 경제학 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결과	한국경제연구원(KERI)
2003	한·중·일 기업 및 경제활동 인식조사	중앙일보
2005	‘반기업정서’의 실체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
2006	한·중·일 기업 및 경제활동 인식조사	중앙일보
	2006년도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2013	Entrepreneurship in the EU and beyond	European Commission
2012	흔들리는 시장경제	한국경제신문·KDI·시장경제 연구원 공동기획
1983-2012	British Social Attitudes	NatCen Social Research
2003-2013	기업호감지수(CFI)	대한상공회의소

2. 조사방법 설계

-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 포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포본오차는 $\pm 2.2\%$ point
- ▶ 응답자 중 직장인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하여 조사
 - 성/연령/지역에 대해 국내 인구비율에 비례하여 할당
 - 전체 응답자 중 직장인 비율이 30% 이상이며 대기업 종사자가 전체 6.2%, 중소기업 종사자가 24.8% 비율을 차지
 - 학력은 대졸 비율이 58.9%로 제일 높으며 연봉수준은 1,200~4,600만 원 이하 구간 비율이 60.3%로 최상위 차지

3. 세부 조사 항목

- ▶ 설문 내용은 기존 조사와 같이 기업인식, 경제인식, 정책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
되, 조사 항목 분류를 조정하고 전년도 대비 한국 사회 일반 부분을 추가
 - 기업·기업인에 대한 인식, 시장경제 일반, 한국사회 일반, 경제발전, 기업활동, 경
제활동에 대한 보상, 경제 제도와 정부 정책 등 총 7가지 주제의 69문항으로 구성
 - 전년도 9가지 주제 54문항에서 중복되거나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18개 문항
을 삭제하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33개 문항을 추가
 - 직업별 호감도와 신뢰도, 법치에 대한 신뢰도, 삶에 대한 만족도 관련 문항을 배치
한 ‘한국사회 일반’ 항목을 신설

[표 2] 2012~2014 설문 문항 비교

분류	2012년 문항 수	2013년 문항 수	분류	2014년 문항 수
A. 기업 인식	7	7	A. 기업·기업인에 대한 인식	12
B. 경제 인식	7	7	B. 시장경제 일반	7
C. 경제성장	4	5	C. 한국사회 일반	25
D. 임금 수준	6	6	D. 경제발전	5
E. 기업환경 및 기업 생태계	7	8	E. 기업활동	9
F. 경제 일반	6	7	F.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	6
G. 기업의 역할	2	2	G. 경제 제도와 정부 정책	5
H. 반기업 정서	4	4	-	-
I.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운영 방향	-	8	-	-
총	43	54	총	69

▶ 인구특성 변인

-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구분
- 기타 변인으로 직업, 학력, 연봉수준, 사회·정치·경제 관심도, 정치성향 구분

[표 3] 응답자 특성

		사례 수	비율(%)
전 체		2,000	100.0%
■ 거 주 지 ■	서 울	409	20.4%
	인천/경기	582	29.1%
	대전/충청	200	10.0%
	광주/전라	204	10.2%
	대구/경북	206	10.3%
	부산/울산/경남	316	15.8%
	강원/제주	84	4.2%
■ 성 별 ■	남 성	991	49.6%
	여 성	1,009	50.4%
■ 연 령 대 ■	2 0 대	355	17.7%
	3 0 대	386	19.3%
	4 0 대	435	21.7%
	5 0 대	394	19.7%
	60 대 이상	431	21.5%
■ 직 업 ■	대기업종사자	124	6.2%
	중소기업종사자	496	24.8%
	공무원	101	5.1%
	전문직종사자	218	10.9%
	자 영 업 자	211	10.5%
	무직/기타	851	42.5%
■ 학 력 ■	중 졸 이 하	53	2.7%
	고 졸	610	30.5%
	대 졸	1,179	58.9%
	석 사 졸	131	6.6%
	박 사 이 상	26	1.3%
■ 연 봉 수 준 ■	1,200만원 이하	448	22.4%
	1,201~ 4,600만원 이하	1,207	60.3%
	4,601~8,800만원 이하	308	15.4%
	8,801만원~3억 이하	33	1.6%
	3억 1만원 이상 ~3억 초과	5	0.2%
■사회/정치/경제관심도■	관 심 있 다	878	43.9%
	보 통	958	47.9%
	관 심 없 다	164	8.2%
■ 정 치 성 향 ■	진 보	517	25.8%
	중 도	1,008	50.4%
	보 수	475	23.8%
■ 대기업 호감도 ■	고 호 감 도	1,298	64.9%
	저 호 감 도	702	35.1%
■ 중소기업호감도 ■	고 호 감 도	1,701	85.1%
	저 호 감 도	299	14.9%
■ 공기업 호감도 ■	고 호 감 도	901	45.1%
	저 호 감 도	1,099	54.9%

II. 주제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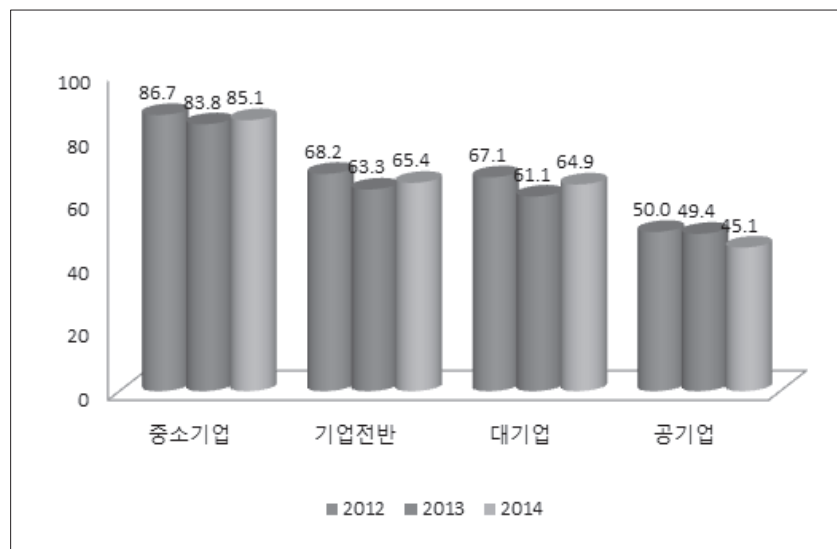
1. 기업·기업인에 대한 인식

가. 기업 호감도

- ▶ 우리 국민의 기업별 호감도는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전년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며, 순서는 중소기업, 기업 전반, 대기업, 공기업으로 전년대와 동일
- 특히 대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3.8%p 증가한 반면, 공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4.3%p 감소함.

[그림 1] 기업 호감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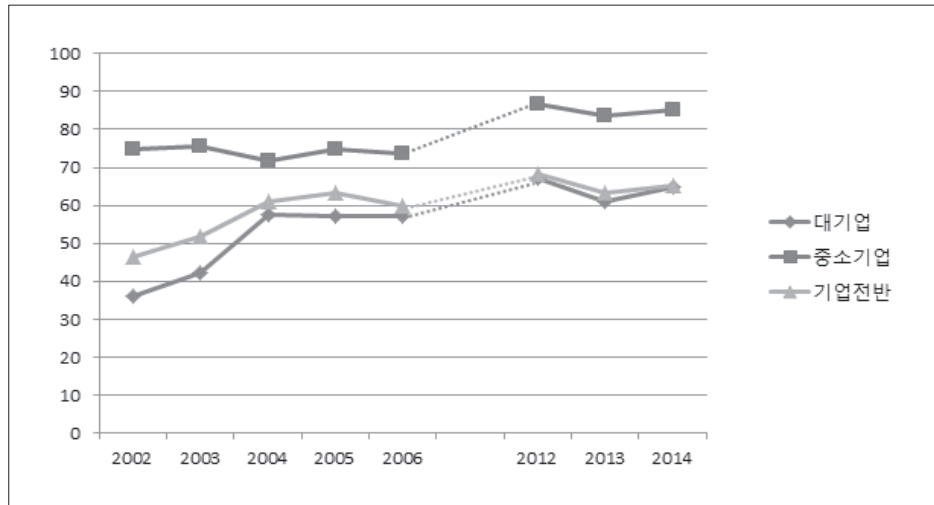


▶ 작년에는 다소 하락했던 기업 호감도가 올해는 최근 10년간의 상승 추세를 회복

- 경제민주화 논란이 잦아들고 국정운영의 중심이 규제개혁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2] 기업 호감도 추이³⁾

(단위: %)



▶ 인구 특성별로는 지난 2년간의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여성과 2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기업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모든 기업 형태(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기업 전반)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호감도가 높음.
- 경제활동이 활발한 3~40대보다 20대와 50대, 60대 이상의 기업 호감도가 높다는 특징이 올해에도 관찰됨. 20대는 대기업과 특히 공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높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낮은 편으로 취업 선호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1. 2002년 KERI 설문(4점 척도)

OO님은 우리나라 기업(기업 전반,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2003년·2006년 중앙일보 설문(4점 척도)

평소 귀국 기업(기업 전반,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3. 2004년·2005년 전경련 설문(4점 척도)

귀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4. 2012~2014년 KERI 설문(4점 척도)

나는 평소 “OOO”(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기업, 국내 기업전반)에 대해 “OOO”하게 생각한다

5. CFI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 반기 발표하는 기업호감도 지수

- 학력이 낮을수록 기업 호감도가 높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학력이 박사 이상인 집단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게 조사됨.
- 직업별 기업 호감도는 기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대기업과 기업 전반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작년에 전반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였던 공무원이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기업 종사자가 높았음. 중소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의외로 중소기업 종사자에서 가장 낮았으며, 공기업 호감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에서 특히 낮게 나타남.
- 정치성향이 보수인 집단에서 기업 호감도가 높았던 지난 2년과는 달리, 모든 기업에 대해 중도 집단의 호감도가 가장 높으며 보수 집단에서는 호감도가 다소 하락

[표 4] 인구 특성별 기업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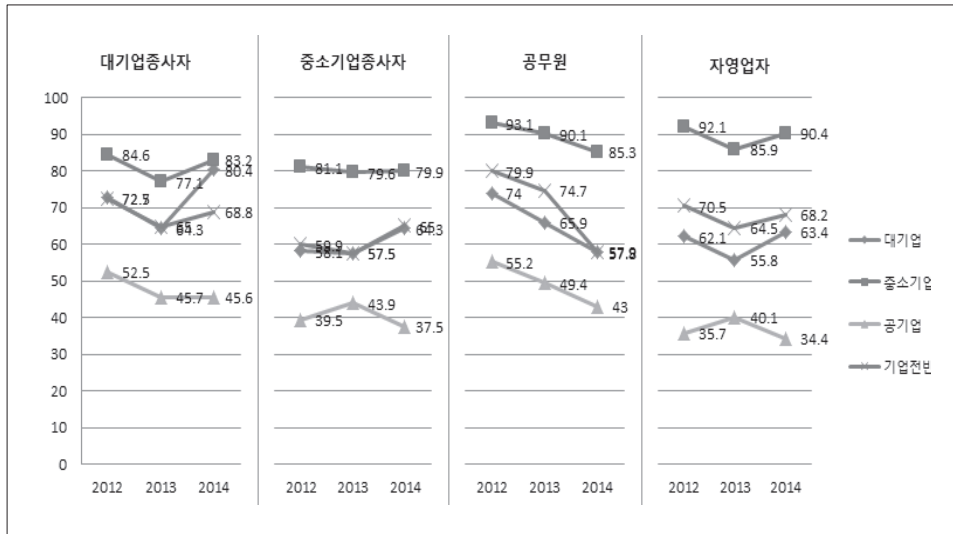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기업 전반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성별	여성 (67.4)	남성 (62.4)	여성 (87.3)	남성 (82.8)	여성 (54.0)	남성 (36.0)	여성 (67.3)	남성 (63.6)
연령	50대 (69.1)	40대 (56.5)	60대 이상 (91.0)	30대 (79.0)	20대 (67.1)	40대 (35.4)	60대 이상 (77.6)	40대 (56.9)
학력	박사 이상 (71.9)	석사졸 (61.6)	박사 이상 (96.5)	석사졸 (82.0)	박사 이상 (53.1)	석사졸 (42.5)	박사 이상 (70.6)	중졸 이상 (59.9)
직업	대기업 종사자 (80.4)	공무원 (57.8)	자영업자 (90.4)	중소기업 종사자 (79.9)	무직/ 기타 (53.3)	자영업자 (34.4)	대기업 종사자 (68.8)	공무원 (57.9)
정치 성향	중도 (66.6)	진보 (62.2)	중도 (85.8)	보수 (83.6)	중도 (45.9)	진보 (43.7)	중도 (67.1)	보수 (62.6)

- ▶ 직업별 기업 호감도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 종사자가 기업 종류별로 가장 고른 호감도를 보임.
- 작년에 가장 높은 기업 호감도를 보였던 공무원 집단에서는 3년째 호감도가 하락하는 추세로 본인 직장에 대한 호감도 역시 하락
 - 전년도 본인 직장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하락했던 대기업 종사자의 대기업 호감도가 80.4%로 크게 상승하여 일반 국민 평균 64.9%를 큰 폭으로 상회
 - 중소기업 종사자의 본인 직장에 대한 호감도는 79.9%로 여전히 다른 직업군의 중소기업 호감도보다 낮은 수준(국민 평균 85.1%)

[그림 3] 직업별 기업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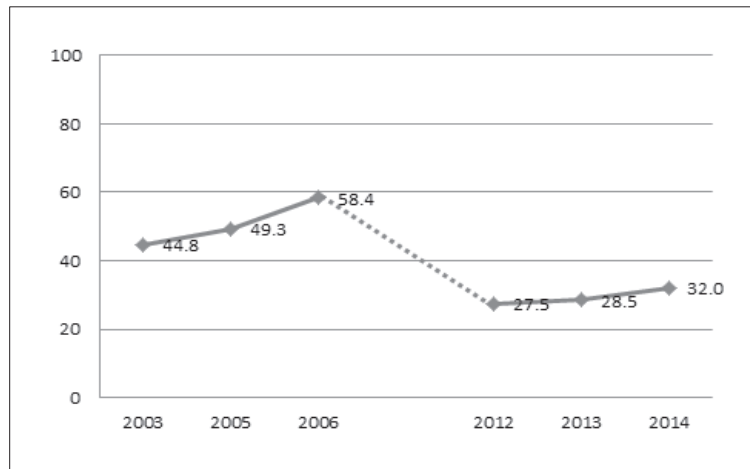
(단위: %)



- ▶ 기업집단 호감도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기업 전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기업집단 호감도는 2012년 이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나 3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과거 다른 기관에서 실시했던 조사결과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그림 4] 기업집단 호감도 추이⁴⁾

(단위: %)



4) 1. 기업집단 또는 재벌기업은 오너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의미
 2. 2003년과 2006년 중앙일보 설문(4점 척도): '평소 재벌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 인구특성별로 20대와 60대 이상, 대기업 종사자에서 기업집단 호감도가 높고, 광주/전라 지역, 40대, 중소기업 종사자와 전문직 종사자에서 낮음.
- 사회/정치/경제 관심도가 높을수록 기업집단 호감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대기업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기업집단에 비호감을 나타낸 비율이 52%로 국민의 상당수가 대기업과 기업집단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표명하고 있음.

[표 5] 대기업과 기업집단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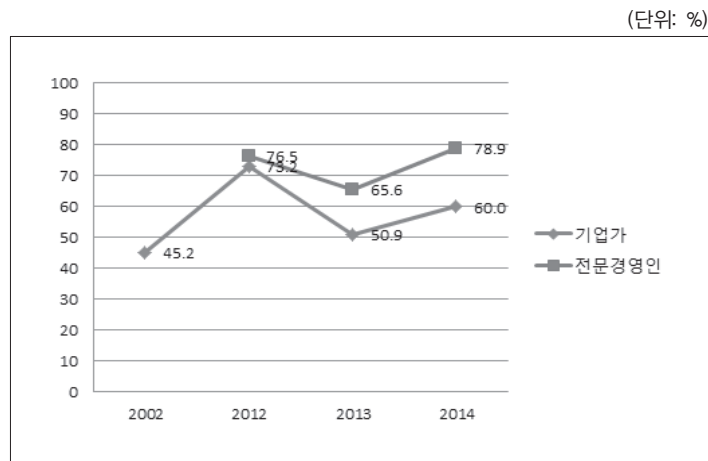
인식	표본 수(개)	비율
기업집단 비호감/대기업 호감	680/1,298	52.4%
기업집단 비호감/대기업 비호감	680/702	96.8%

나. 기업인 호감도

▶ 기업가와 전문경영인에 대한 호감도는 2013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특히 전문경영인에 대한 호감도가 13.3%p 상승한 78.9%로 2012년 수준을 회복하였

[그림 5] 기업가 및 전문경영인 호감도⁵⁾



3. 2005년 KDI 설문은 '재벌에 대한 호감도'의 3점 척도로 반감을 표시하지 않은 비율
4. 중앙일보 설문과 KDI 설문에서 재벌오너에 대한 호감여부를 묻는 설문이 구분되어 있어 재벌은 재벌기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5) 1. 전문경영인: 보수를 받는 대가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 고, 기업가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9.1%p 상승한 60.0% 기록
- 전년과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 3~40대보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높고, 기업 호감도, 특히 대기업 호감도가 높은 집단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무직/기타에서 가장 높고, 전년도 높은 기업인 호감도를 보였던 공무원 집단에서는 기업 호감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함.

[표 6] 인구 특성별 기업가 및 전문경영인 호감도

(단위: %)

	기업가		전문경영인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성별	여성(63.1)	남성(56.9)	여성(82.7)	남성(75.1)
연령	20대(69.6)	40대(49.6)	60대 이상(85.1)	30대(74.7)
학력	대졸(61.2)	박사 이상(37.2)	박사 이상(82.5)	석사졸(76.9)
직업	무직/기타(63.4)	공무원(51.5)	무직/기타(80.2)	공무원(74.1)

다. 반기업 정서

- ▶ 일반 국민 중 반기업 정서가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약 4%p 감소한 59.3%로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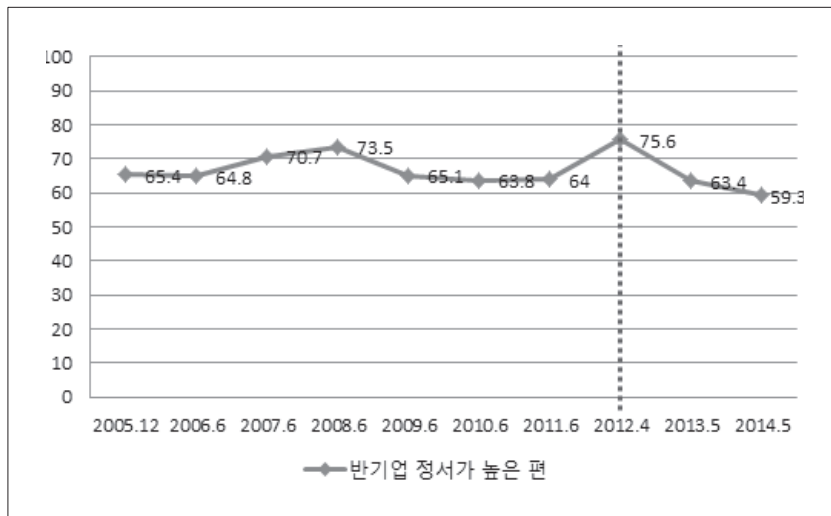
- 반기업적 정책의 감소 추세와 응답자 본인의 기업 및 기업인 호감도 상승에 힘입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 역시 감소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임.
- 인구특성별로 서울 지역(64%), 남성(67%), 대기업 종사자(71%)에서 반기업 정서가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작년에 7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공무원의 반기업 정서가 높다는 인식은 올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66.1%로 높음.
- 연령별로는 기업 호감도가 낮은 30대(57%)와 40대(58%)보다 오히려 기업 호감도가 높은 50대와 60대에서 각각 60.2%, 61.3%로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성향이 보수에 가까울수록 반기업 정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등 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반기업 정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해석됨.

기업가: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고 경영하는 사람

2. 2002년 KERI 설문(4점척도): 'OO님은 우리나라 기업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6] 반기업 정서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⁶⁾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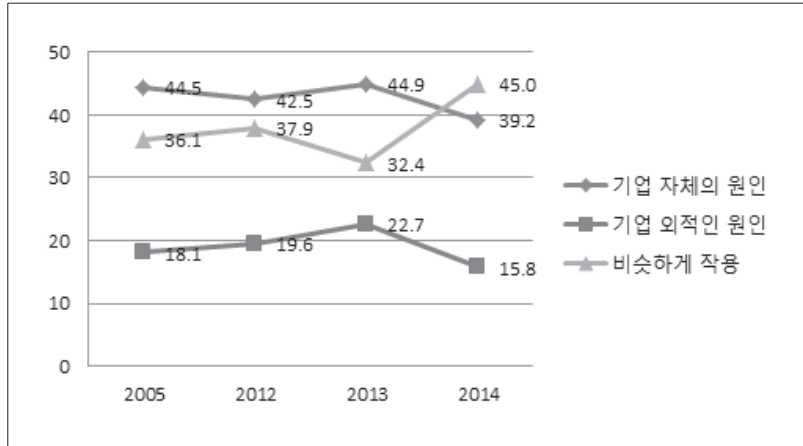
▶ 반기업 정서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조사결과와 달리 기업 자체의 원인과 외적 원인이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

- 지난 2년간 조사에서는 반기업 정서의 원인으로 기업 자체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 자체의 원인과 기업 외적인 원인이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음.
- 기업 자체와 외적 원인이 비슷하다는 의견은 여성(50%), 50대(48%), 60대 이상(50%), 대기업 종사자(47%), 무직/기타(48%), 대기업 호감도가 높은 집단(48%) 등 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서 높았음.

6) 1. 2005년~2011년 결과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호감도(CFI) 보고서 내 ‘국내 반기업정서 수준’ 참조.
2. CFI 보고서의 질문은 ‘우리나라는 반기업정서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고 보기 문항은 ‘그렇다’와 ‘아니다’ 두 가지로 구성

[그림 7] 반기업 정서는 기업 자체적 요인과 기업 외적 요인 중 무엇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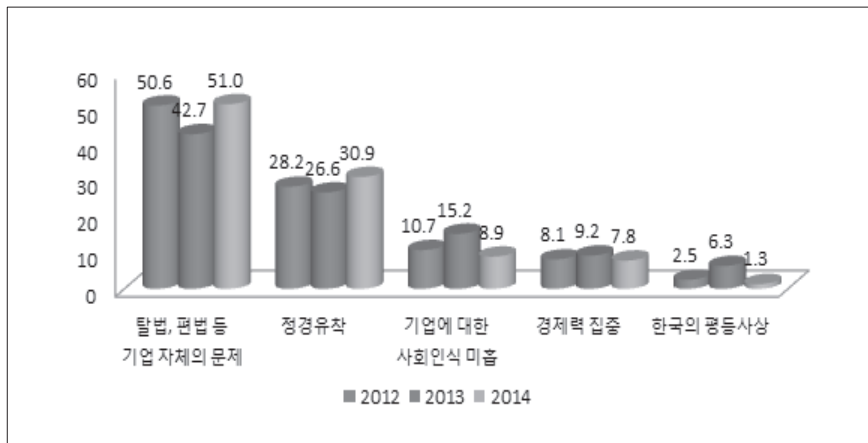
(단위: %)



- ▶ 반기업 정서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탈법과 편법 등 기업경영상의 문제를 여전히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응답이 전년 대비 8%p 상승하여 과반을 상회
- 기업경영상의 문제와 정경유착 때문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기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한국의 평등사상 때문이라는 응답은 감소

[그림 8] 국내에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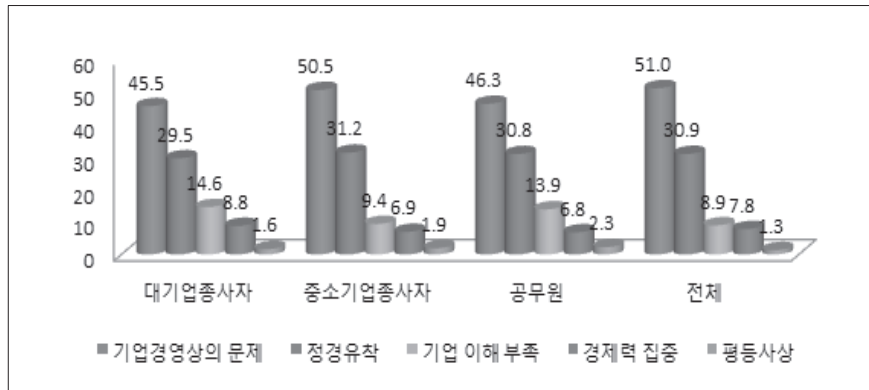


7) 2005년 KDI 설문(5점척도): '반기업 정서의 원인'

- 모든 직업군에서 기업경영상의 문제라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작년 조사에서 공무원 계층은 기업경영상의 문제(35%)와 정경유착(33%)을 비슷한 비율로 지적했으나 금년 조사에서는 기업경영상의 문제라는 응답 비율(46%)이 크게 늘었음.
- 기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종사자(15%)와 공무원(14%) 계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9] 직업별 반기업 정서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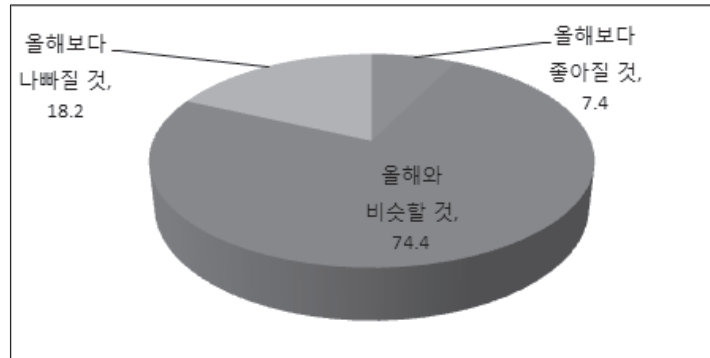


▶ 국민 대다수가 내년의 반기업 정서 수준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

- 내년의 반기업 정서 수준에 대한 전망에서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74.4%로 가장 높고 올해보다 나빠진다는 응답은 18.2%, 좋아진다는 응답은 7.4%로 나타나 내년에도 반기업 정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됨.
-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77%)에서 높았으며,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1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은 광주/전라(20%), 남성(21%), 20대(23%), 30대(21%), 40대(21%), 그리고 공무원(26%)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10] 내년의 반기업 정서 수준 예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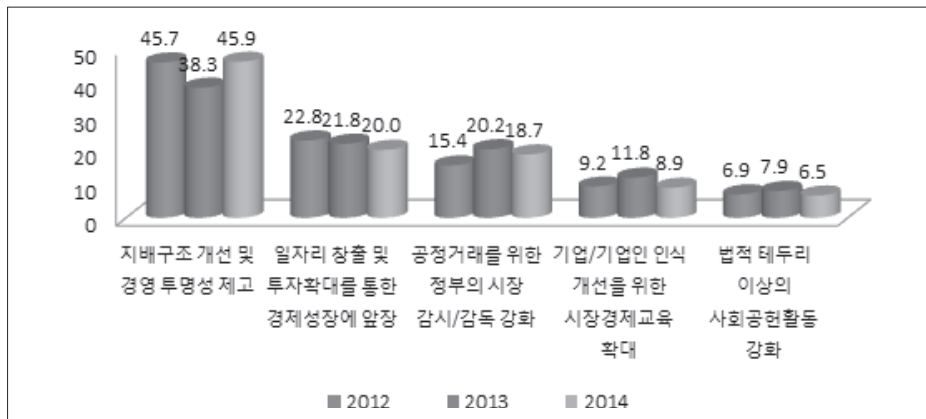


▶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전년 대비 큰 폭 상승

- 반기업 정서가 기업경영상의 문제 때문이라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선택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경영투명성 제고를 선택한 비율은 50대(51%), 대기업종사자(57%)에서 높고, 사회/정치/경제 관심도나 정치성향에 따른 큰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남.

[그림 11] 반기업 정서 완화 방안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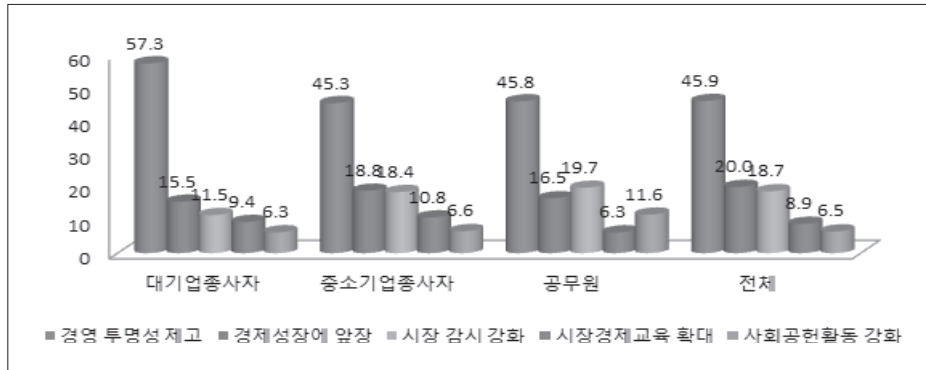


- 모든 직업군에서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의견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대기업 종사자에서는 전년 대비 20%p 가량 대폭 상승하여 57%에 이릅니다.

- 중소기업 종사자의 '시장 감시 강화' 응답은 감소(4%p)한 반면, 공무원 계층에서는 '경제성장에 앞장'이 감소(6%p)하고 '시장 감시 강화'(3%p)는 증가

[그림 12] 직업별 반기업 정서 완화방안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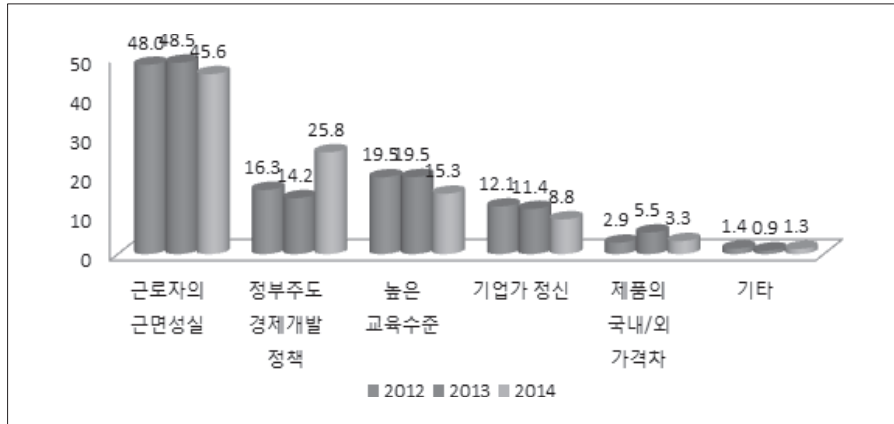
2.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

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

- ▶ 우리나라가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근로자의 근면성실이라고 인식
 -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의 근면 성실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난 2년간의 결과와 큰 차이 없이 가장 높음.
 - 정부주도 경제개발 정책을 선택한 비율이 지난 2년간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2순 위로 꼽히고, 높은 교육수준과 기업가정신을 지목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감소
 - 근로자의 근면성실을 택한 비율은 30대(52%), 40대(56%), 대기업 종사자(56%)에서 높고 진보 성향에 가까울수록 상승하는 경향
 - 정부주도 경제개발 정책이라는 응답은 경제발전 과정을 경험한 50대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높게 조사됨.

[그림 13]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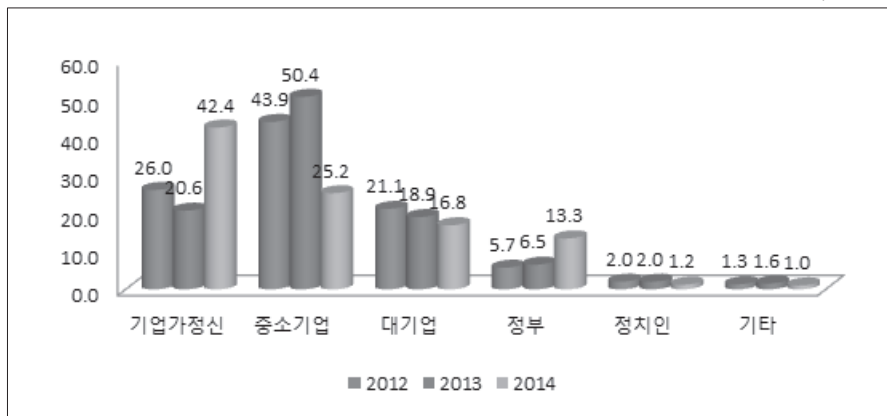


▶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42%로 크게 증가

- 지난 2년간 향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중소기업이라는 응답은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기업가정신은 두 배 이상 늘어 42.4%로 가장 높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두 배 이상 증가한 13.3%를 기록
- 창조경제, 경제혁신, 규제개혁 등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가정신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임.

[그림 14]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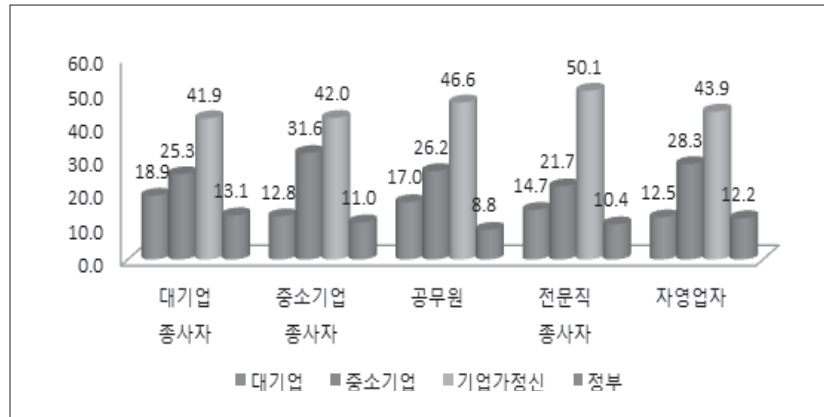
(단위: %)



- 기업가정신은 40대(46%), 전문직 종사자(50%), 공무원(47%)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중소기업이라는 응답은 남성(28%), 중소기업 종사자(32%), 자영업자(28%)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15] 직업별 경제성장의 견인차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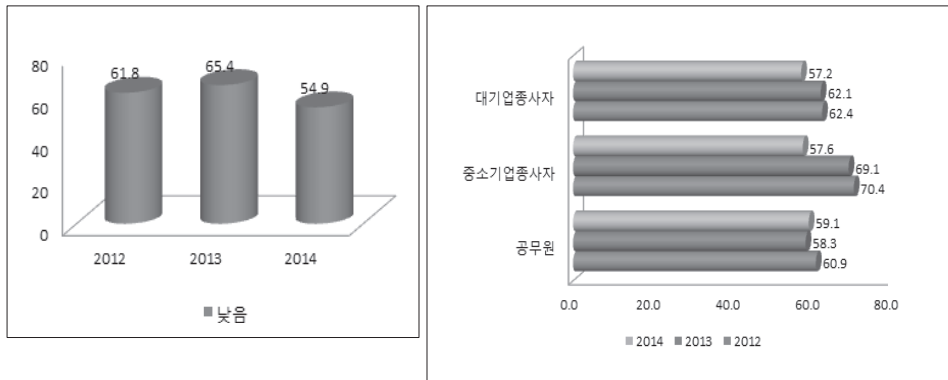
나. 기업가정신

▶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

- 국내 기업가정신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54.9%로 전년 대비 10.5%p 감소하였으며, 20대(63%)와 30대(59%), 진보 성향으로 갈수록 낮다는 의견이 많았음.
- 지난 2년간 기업가정신 수준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던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인식이 가장 많이 바뀌었고 대기업 종사자의 인식 역시 개선되었으나 공무원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국내 기업가정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59%에 이룸.

[그림 16] 국내 기업가정신이 미흡한 수준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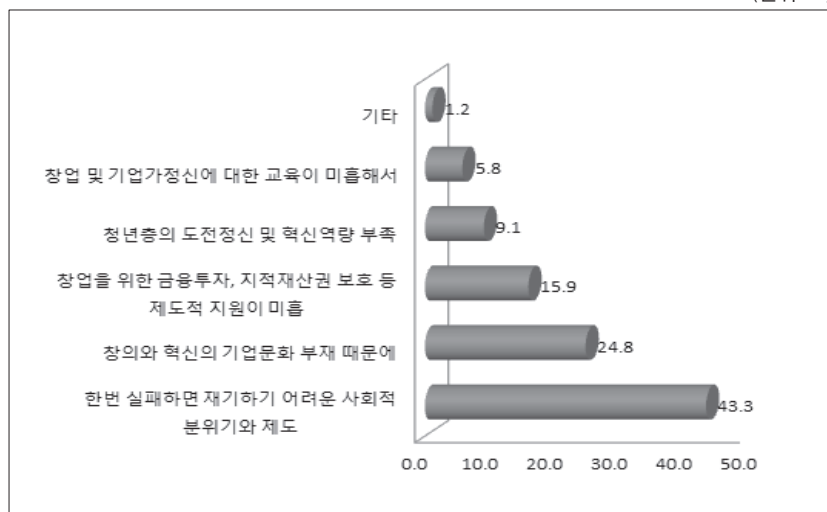


▶ 국내 기업가정신 수준이 낮은 이유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지적한 응답자가 43.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창의와 혁신의 기업문화 부재(25%), 금융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제도적 지원 미흡(16%)의 순서로 나타남.
-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라는 응답은 대기업 종사자(47%)에서 다소 높고 자영업자(37%)에서 낮으며, 정치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그 비율이 높았음.

[그림 17] 국내 기업가정신 수준이 낮다면 그 이유는?

(단위: %)



- 창 의 와 혁 신 의 기 업 문 화 부 재 때 문 이 라는 응 답 은 50대(31%), 공 무 원(32%)에 서 높 고, 제 도 적 지 원 미 흡 을 지 적 한 응 답 은 20대(20%)에 서 높 게 나 타 남.

▶ 앞 으 로 기 업 가 정 신 은 현 재 에 비 해 어 뎀 것 으 로 기 대 하 느 냐 는 질 문 에 낮 아 진 다 는 의 견 보 다 는 높 아 진 다 는 의 견 이 다 소 높 음.

- 비 슷 할 것 이 라는 의 견 이 66.1%로 가 장 높 게 나 타 났 으 며, 광 주/전 라(74%), 여 성(69%)에 서 높 고 사 회/정 치/경 제 관 심 도 가 낮 을 수 록 그 비 율 이 높 아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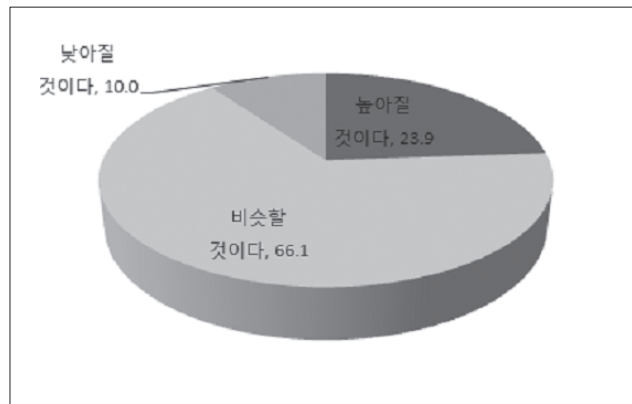
- 높 아 진 다 는 의 견 은 23.9%로 청 년 층 보 다 50대(27%)와 60대 이 상(29%)에 서 높 고, 자 영 업 자(28%)와 연 봉 4,600만 원 ~8,800만 원(29%) 집 단 에 서 도 높 게 나 타 남.

- 낮 아 질 것 이 라는 부 정 적 전 망 은 남 성(13%), 중 소 기 업 종 사 자(14%)에 서 높 음.

- 진 보 성 향 의 응 답 자 는 중 도 나 보 수 성 향 보 다 높 아 질 것(27%)과 낮 아 질 것(12%)이 라 는 두 가 지 응 답 비 율 이 상 대 적 으 로 높 은 것 으 로 조 사 됨.

[그림 18] 향 후 우 리 나 라 기 업 가 정 신 수 준 에 대 한 기 대

(단 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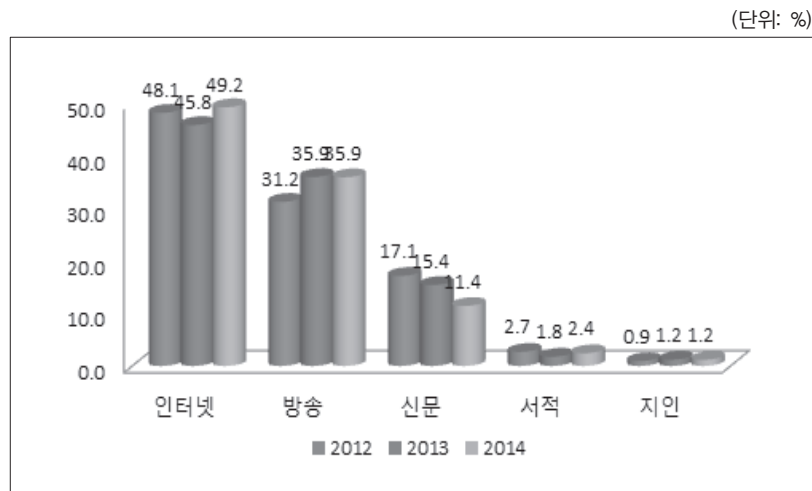
3.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

가. 경제 상식 습득 경로

▶ 대 부 분 의 국 민 들 은 주 로 인 터 넷 과 방 송 을 통 해 경 제 관 련 정 보 를 습 득 하 고 있 으 며 종 이 매 체 에 의 존 하 는 비 율 은 점 차 감 소 하 는 추 세

- 인터넷을 통해서 경제 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49%로서 전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p 증가하였고 방송 의존도는 전년과 유사하게 36% 수준을 보임.
- 신문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2012년 17% ⇒ 2013년 15% ⇒ 2014년 11%로 갈수록 줄고 있으며, 그나마 자영업자의 신문 의존 비중(17%)이 비교적 높은 편임.
- 여성은 방송(46%) ≫ 인터넷(43%) ≫ 신문(7%)의 순인데 비해 남성은 인터넷(55%) ≫ 방송(25%) ≫ 신문(16%)의 순으로 응답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임.
-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높고(20대: 66% ⇒ 60대 이상: 27%), 연령이 많을수록 방송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20대: 20% ⇒ 60대 이상: 55%)

[그림 19] 경제 관련 상식 습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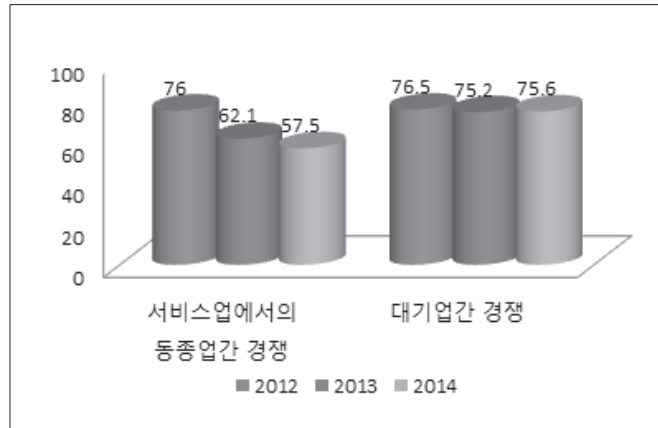
나. 시장 경쟁

- ▶ 시장경쟁: 대기업 간 경쟁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긍정, 골목상권 경쟁에 대한 긍정 응답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절반이 넘는 58%를 유지
 - 제조업 부문에서 대기업 간 경쟁에 대해 작년과 유사한 75.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격 하락 효과 등 소비자 이익 중시(58%) 관점이 기술혁신 등의 산업정책 관점(17%)보다 우선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치킨, 편의점, 빵집 등 골목상권 내 동종업체 간 경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13년에 대폭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4.6%p 감소하여 57.5%에 머물고 있음.

-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골목 상권 보호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경쟁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53%)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에 골목상권 안의 동종업체 간 경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60대 이상(66%), 공무원(63%), 대기업 종사자(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0] 사업자 간 경쟁에 대한 긍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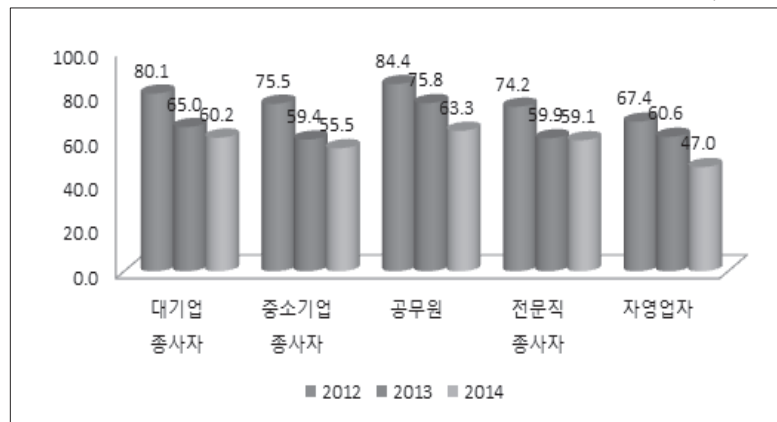
(단위: %)



- ▶ 직업별로는 공무원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타 직업군과 비교할 때 시장경쟁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이 높은 편
- 서비스업 시장 내 경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감소한 가운데 공무원

[그림 21] 직업별 골목상권 내 동종업체 간 경쟁에 대한 긍정적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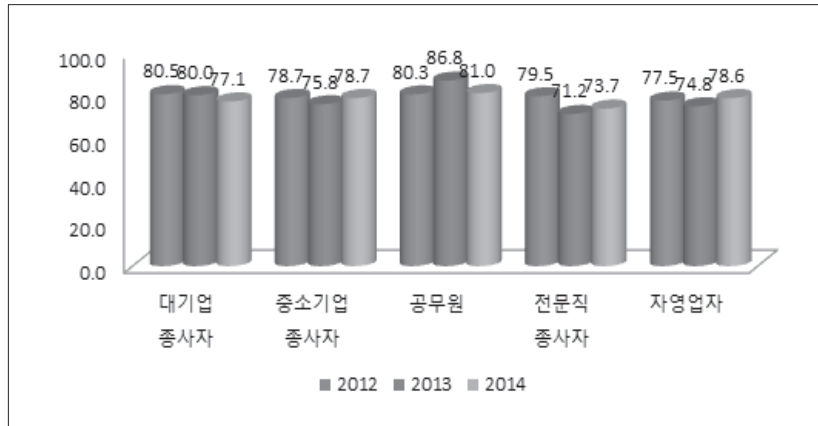


의 긍정 인식 비율이 큰 폭으로(13%p) 하락하였으며, 특히 자영업자에서 14%p 하락하여 긍정 인식 비율이 과반을 하회함.

- 제조업 부문에서의 대기업 간 경쟁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긍정 인식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기업 종사자의 긍정 인식은 소폭 감소, 타 직업군에서는 소폭 상승

[그림 22] 직업별 자동차 제조업체 간 경쟁에 대한 긍정적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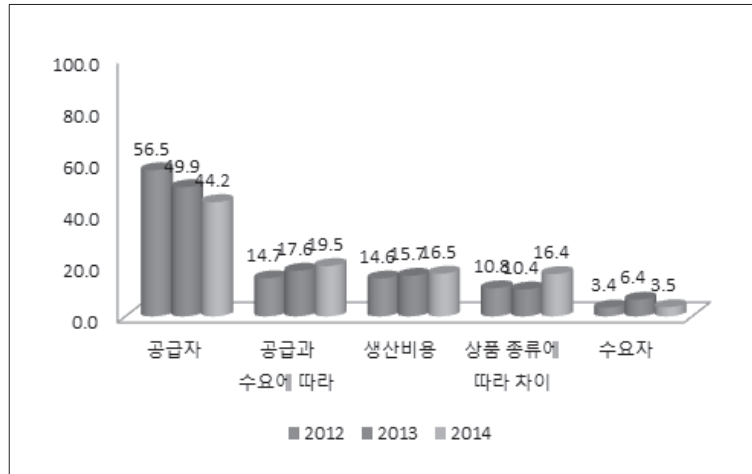
다. 시장가격 결정

- ▶ 상품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하고 공급자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음.

- TV, 라면 등의 시장가격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견은 작년의 18%에서 20%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공급자가 결정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44%로 가장 많음.
- 공급자가 결정한다는 응답은 여성(38%)보다는 남성(51%)에서 더 높고, 직업별로는 공무원(54%) >> 중소기업 종사자(52%) >> 대기업 종사자(51%) 순으로 나타남.
-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응답은 20대(28%)와 중졸 이하(30%)에서 비교적 높고, 60대 이상(17%), 중소기업 종사자(16%), 박사 이상(16%)에서 낮아 학력과 시장 원리에 대한 이해도는 서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그림 23] 우리나라 TV, 라면 등의 시장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단위: %)



4. 소득과 직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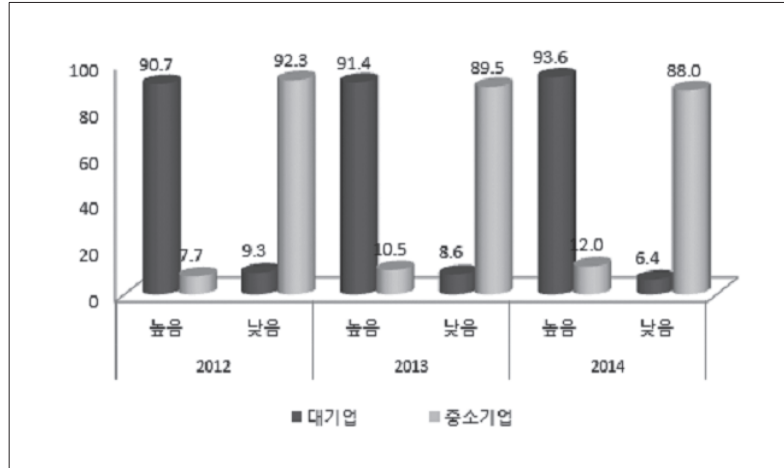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 국민 대부분이 대기업의 임금수준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낮다고 인식

-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93.6%,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88.0%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
-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사이에서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높고(97%)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낮다(93%)는 의견이 많으며, 대기업 종사자 역시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낮다(94%)라고 인식함.
-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인식은 남성(90%)과 30대(91%)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20대에서는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7.7%로 타 응답자 대비 높은 편

[그림 24]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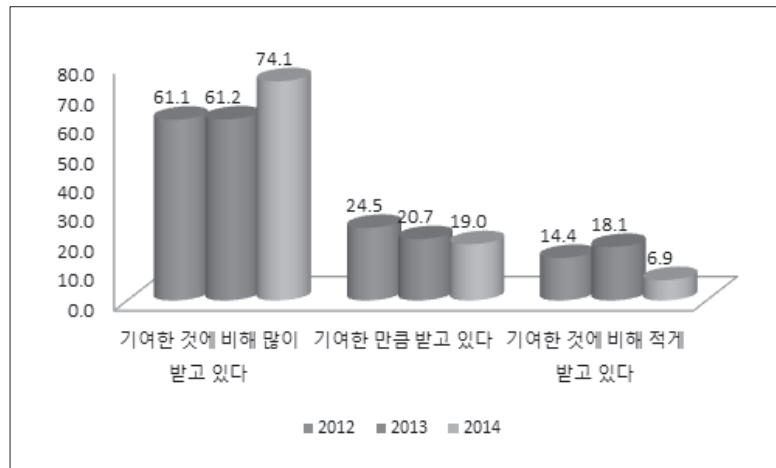


▶ 국민의 약 3/4 가량이 대기업 경영자는 기여에 비해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

- 대기업 임원 보수 공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영향으로 대기업 경영자는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약 13%p 상승하여 74.1%에 이름.
- 기여한 만큼 받는다는 응답은 전년과 유사한 19%에 머물렀으며 기여에 비해 오히려 보상이 적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11%p나 대폭 감소하여 6.9%에 불과함.

[그림 25] 대기업 경영자들은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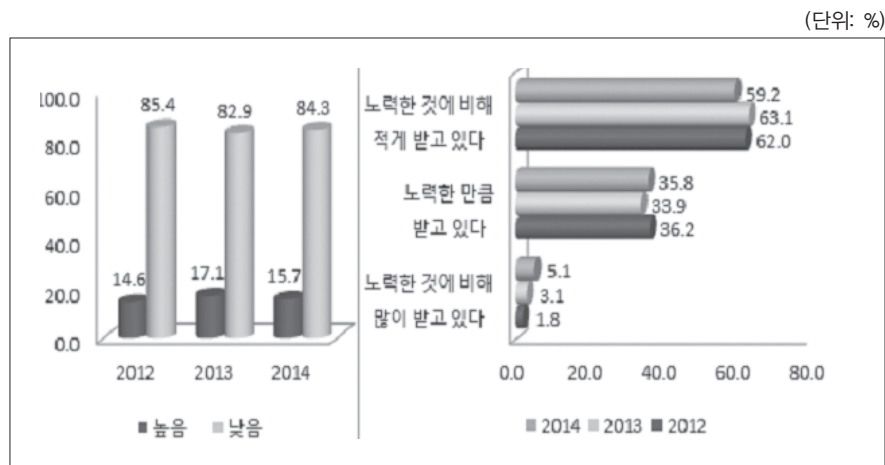
- 기여에 비해 많이 받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81%)에서 가장 높고 20대(61%)에서 가장 낮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83%)에서 가장 높고 전문직 종사자(70%)와 자영업자(72%)에서 가장 낮으며, 대기업 종사자의 응답비율은 79% 수준

나. 본인의 임금 수준

- ▶ 본인의 경우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응답한 비중이 59%로서 일반 국민의 과반 이상이 여전히 본인의 소득 수준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본인의 소득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전년과 비슷한 84.3%. 본인의 노력에 보상이 적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반을 넘는 59.2%에 이름.
- 노력에 비해 적게 받는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65%), 30대(65%), 40대(67%), 중소기업 종사자(63%), 그리고 진보 성향(63%)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생애 주기에서 가장 활발히 일할 나이인 30~40대에서 노력의 대가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이는 이들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평균 대비 6~7%p 정도의 차이로 가장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26] 본인 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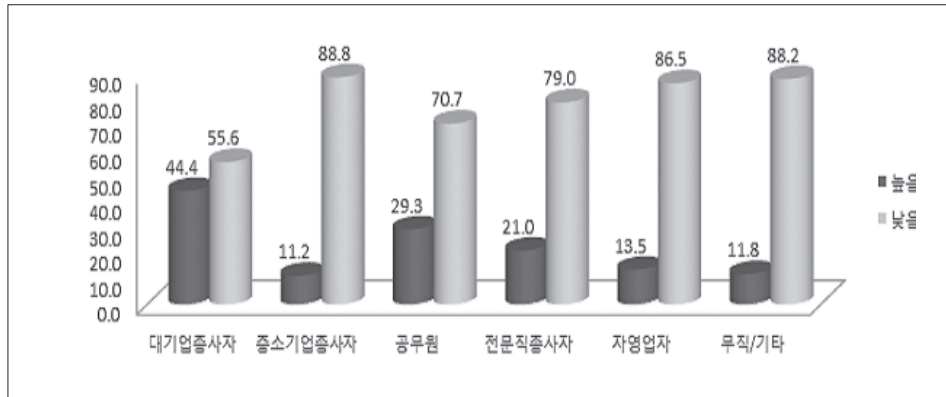
- 소득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여성(86%), 20대(88%), 중소기업 종사자(89%), 무직/기타(88%)에서 높은 반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서울(20%), 50대(19%), 대기업 종사자(44%), 공무원(29%), 전문직 종사자(21%)에서 높고 사회/정치/경제 관심도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 이 같은 결과는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청년 고용의 질이 낮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7] 직업별 본인의 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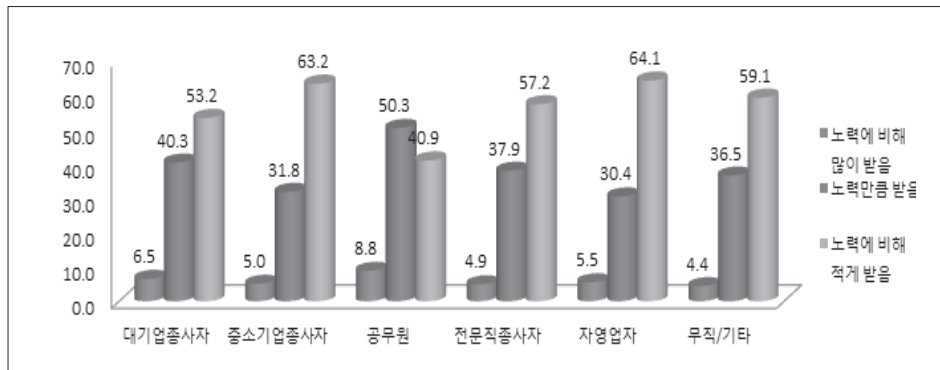
(단위: %)



- 특히 본인의 보상 수준에 대한 인식을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은 ‘노력한 것에 비해 많이 받는다(9%)’와 ‘노력한 만큼 받는다(50%)’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노력한 것에 비해 적게 받는다(41%)’는 낮아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노력한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평균(59%)보다 4~5%p 높아 상대적으로 직업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8] 직업별 본인의 보상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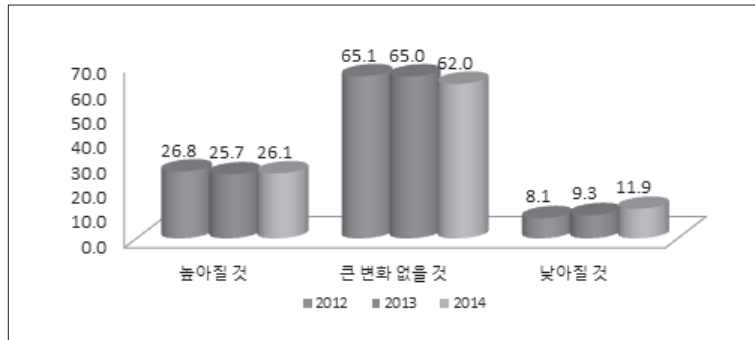


▶ 본인의 미래 소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앞으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62.0%,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소폭 상승한 11.9%에 이릅니다
- 높아질 것으로 낙관하는 의견은 서울(30%), 인천/경기(29%)에서 높고,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비율이 현저히 높아짐.

[그림 29] 향후 나의 소득 수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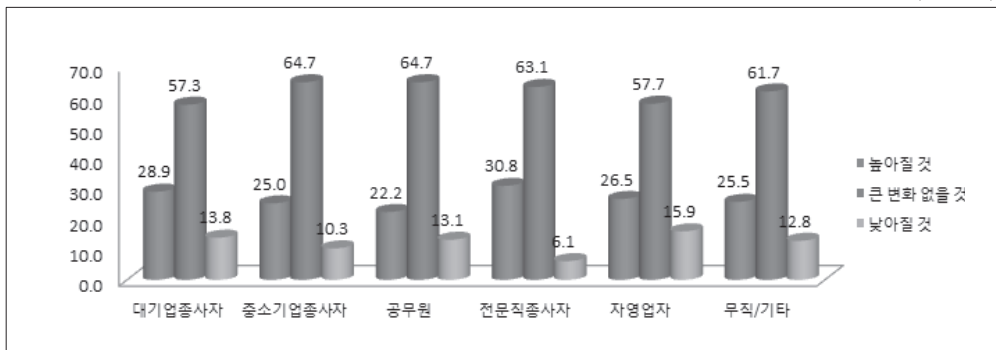
(단위: %)



- 직업별로는 전문직 종사자(높아질 것 31%, 낮아질 것 6%)가 미래 소득에 대해 가장 낙관적이며, 자영업자(높아질 것 27%, 낮아질 것 16%) 사이에서 소득 하락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0] 직업별 본인의 소득 수준 예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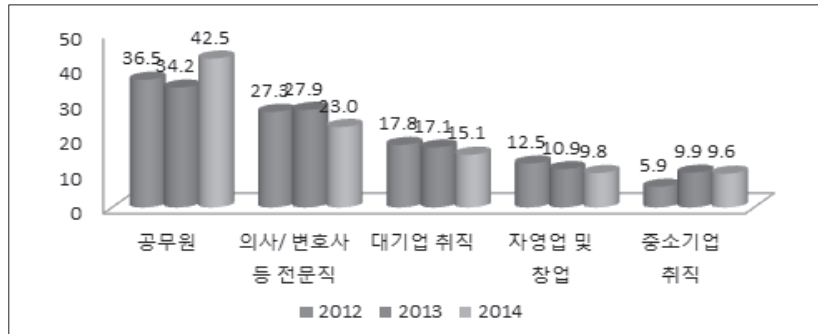


다. 직업 선호도

- ▶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 인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및 자영업 선호도는 10%에 불과, 안정적 직업 선호 경향이 늘면서 공무원 선호도는 대폭 증가
 - 본인 또는 본인 자녀의 경제활동 참여방식으로 공무원 선호도는 전년 대비 약 8%p 상승한 42.5%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 선호도는 약 5%p 하락한 23.0%로 2위를 유지했으며, 타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소폭 하락
 - 공무원 선호도는 특히 광주/전라(52%), 강원/제주(56%), 50대(49%)와 60대 이상(48%)에서 높았고, 전문직은 서울(30%)과 30대(34%)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31] 본인 또는 본인 자녀가 참여하길 원하는 경제활동 방식

(단위: %)



- 작년 조사에서 전문직을 가장 선호했던 전문직 종사자와 대기업 종사자의 경우 금년 조사에서는 공무원 선호도가 10%p 이상 상승, 공직을 1순위로 지목하고 있음.
- 모든 직업군에서 일자리 불안이 심화되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고 노후 연금소득이 높은 공직 선호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표 7] 직업별 본인 또는 본인 자녀가 원하는 경제활동 방식

(단위: %)

	대기업 종사자	중소기업 종사자	공무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17.8	16.3	9.5	17.2	9.9
중소기업	3.6	14.0	8.9	5.1	9.0
공무원	37.9	38.7	55.5	40.8	35.5
자영업	3.6	8.8	4.2	20.6	10.1
전문직	37.1	22.2	21.9	16.2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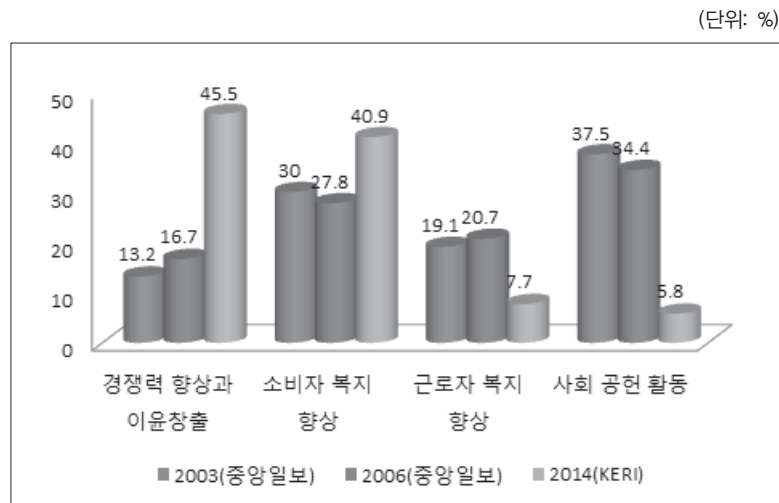
5. 기업 활동에 대한 인식

가. 기업의 경영 목표

▶ 일반 국민의 절반은 기업의 경영 목표가 경쟁력 향상과 이윤 창출이라고 인식

- 기업의 경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45.5%가 경쟁력 향상과 이윤 창출이라고 응답, 소비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도 40.9%로 높음.
-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윤창출이라는 응답은 대기업 종사자(55%)와 중소기업 종사자(52%), 대기업 호감도가 높은 집단(49%) 등 기업의 경영 원리에 익숙한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비자를 위해 값싸고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49%), 60대 이상(49%), 무직/기타(45%)에서 높음.
- 참고로 중앙일보(2003, 2006)에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그림 32]에서 보듯이 경쟁력향상과 소비자 복지 향상 응답이 크게 증가한 듯 보임. 그러나 중앙일보와 본 조사의 문항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⁸⁾

[그림 32] 기업의 경영 목표에 대한 인식



주: 2003년, 2006년 결과는 중앙일보 '한·중·일 기업 및 경제활동 인식조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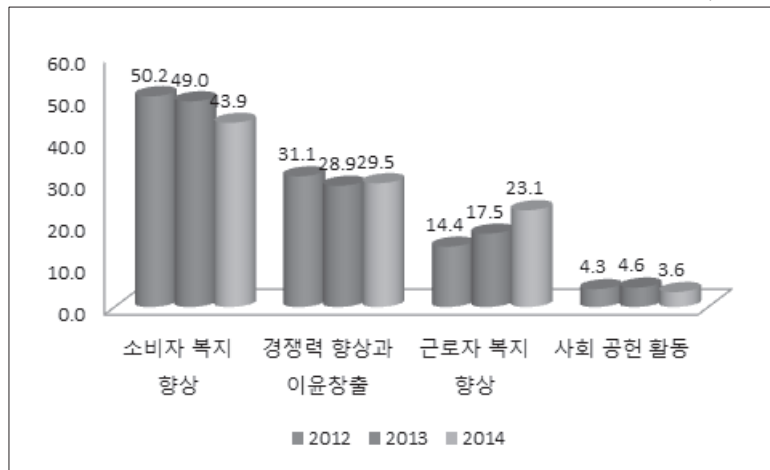
8) 중앙일보에서는 '기업이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선택지는 ① 기업의 이익과 발전, ②사회와 국가의 발전, ③근로자의 복지와 발전, ④소비자 복지 향상, ⑤기타로 구성

▶ 질문을 바꾸어 본인이 기업을 경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할 경영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는 소비자 만족이라는 응답이 더 높음.

- 본인의 기업 경영 목표를 소비자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5%p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43.9%를 기록
- 경쟁력 향상과 이윤창출이라는 응답은 지난 2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라는 응답이 3년간 지속 상승하여 23.1%로 조사됨.
- 소비자 복지 향상이라는 응답 비율은 여성(48%), 50대(52%), 60대 이상(54%), 전문직 종사자(50%)에서 높음.
-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윤창출이라는 응답은 남성(34%), 20대(33%)와 30대(31%) 등 청년층에서 다소 높고, 대기업 종사자(39%)와 공무원(38%)에서 높게 나타나며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근로자 복지 향상은 특히 30대(31%)에서 기업 경쟁력 향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고 40대(27%), 중소기업 종사자(29%)에서도 높음.

[그림 33] 본인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우선적으로 추구할 경영 목표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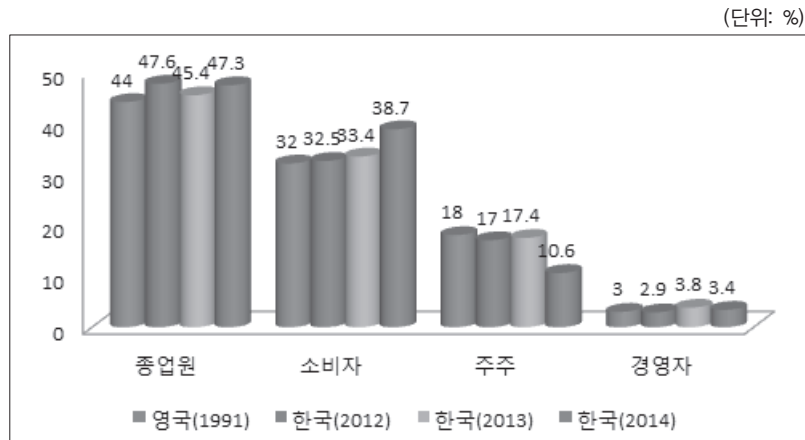


▶ 기업 이윤은 주주보다 종업원에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

- 기업 이윤이 종업원에 배분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7.3%로 지난 2년간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나, 소비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38.7%로 증가하고 주주에게 배분

- 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약 7%p 급락한 10.6%에 불과
-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경쟁력 향상이고 본인이 기업을 한다면 소비자 만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의 이윤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각기 다른 인식을 견지하고 있음.
 - 이윤이 종업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특히 대·중소기업 임금 근로자(57%)에서 가장 높으며,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51%)와 40대(54%) 연령층에서 높음.
 - 공무원의 경우 종업원 우선 배분 응답(35%) 보다는 소비자 우선 배분 응답(48%)이 높으며, 자영업자의 경우도 종업원 보다 소비자를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함.
 - 참고로, 이윤 배분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민 인식은 1991년에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⁹⁾ 주주 우선 배분에 대한 지지도가 현저하게 낮은 바, 이 결과가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음.

[그림 34] 기업의 이윤이 났을 때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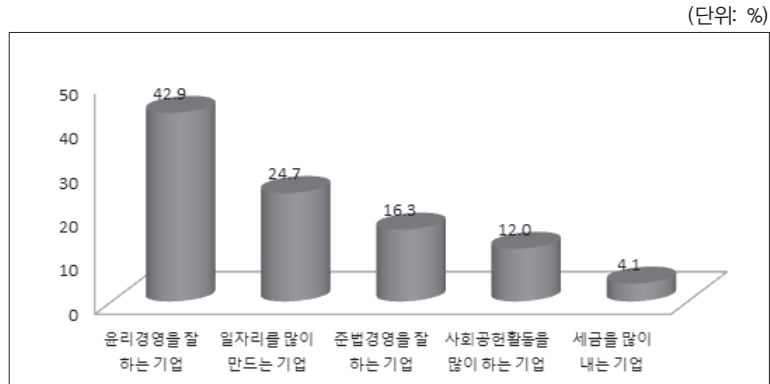


▶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기업은 윤리경영을 잘하는 기업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은 윤리경영을 잘하는 기업이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고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25%), 준법 경영 잘하는 기업(16%) 순으로 나타남.
- 윤리경영 기업이라는 응답은 공무원(52%)과 대기업 종사자(51%), 연령별로는 20대(47%), 30대(48%), 40대(48%)에서 높음.

9) 1991년 영국의 결과는 British Social Attitudes 1992년 보고서 참조

[그림 35]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기업



-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 응답은 60대 이상(31%), 대기업 종사자(28%)와 자영업자(29%)에서 높고 공무원(15%)에서 가장 낮음.
- 대기업 종사자는 준법경영(9%)이나 사회공헌(6%)을 선택한 비율이 낮고, 특히 공무원(16%)과 자영업자(18%) 집단에서 사회공헌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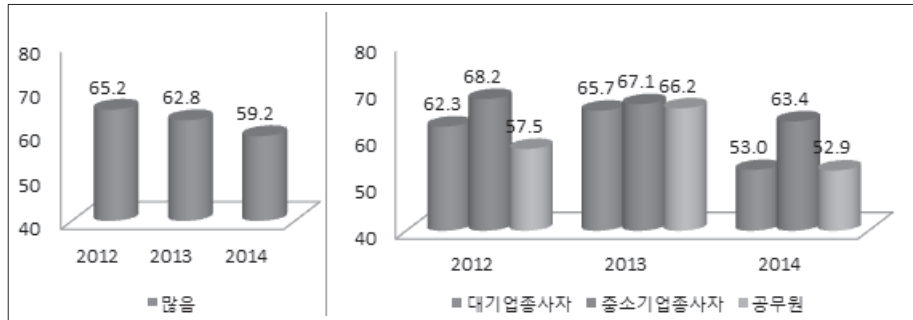
나. 기업 환경

-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기업이 많다는 응답은 지난 3년간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과반을 넘고 있음.

-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중견기업, 대기업의 비중은 낮은 편임에도 국민의 59.2%가 우리나라에 대기업의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 지난 3년간 조사 결과, 대기업 수가 많다는 인식은 2012년도의 65.2%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이 대기업의 수가 많다고 보고 있음.
- 대기업 수가 많다는 응답은 광주/전라(68%), 30대(63%), 중소기업 종사자(63%)에서 높게 나타나며, 대기업 종사자와 공무원 집단에서는 대기업 수가 많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
- 대기업 수가 많지 않다는 의견은 서울(47%), 보수 성향 응답자(44%), 대기업 호감도가 높은 응답자(44%)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6]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수가 많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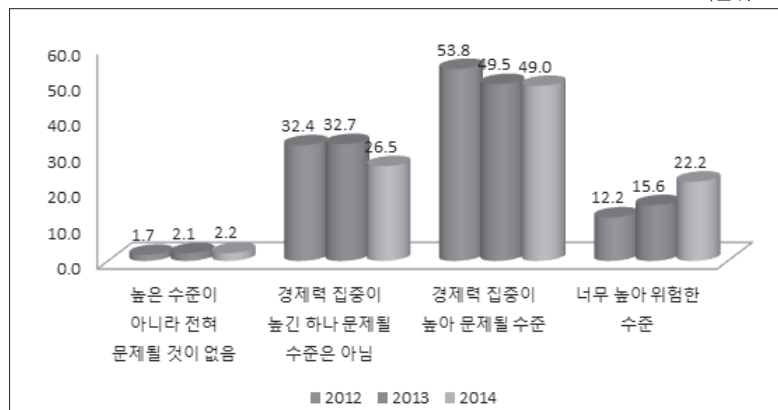


▶ 국민의 2/3 이상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이 높아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 경제력집중이 높아 문제라는 응답이 전체의 71.3%로 작년의 65.1%보다 증가했으며, 이 중에 너무 높아 위험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전년 대비 6%p 증가하였음.
- 연령이 낮을수록,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낮을수록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은 작년과 같으며, 특히 20대(77%), 대기업 호감도가 낮은 집단(86%), 중소기업 호감도가 낮은 집단(79%)에서 그 비율이 높음.
- 그러나 정치성향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작년만큼 크지 않으며, 직업별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77%)과 중소기업 종사자(75%)에서 경제력집중을 우려하는 경향이 높고, 대기업 종사자(64%)와 전문직 종사자(65%)의 우려가 낮은 편

[그림 37]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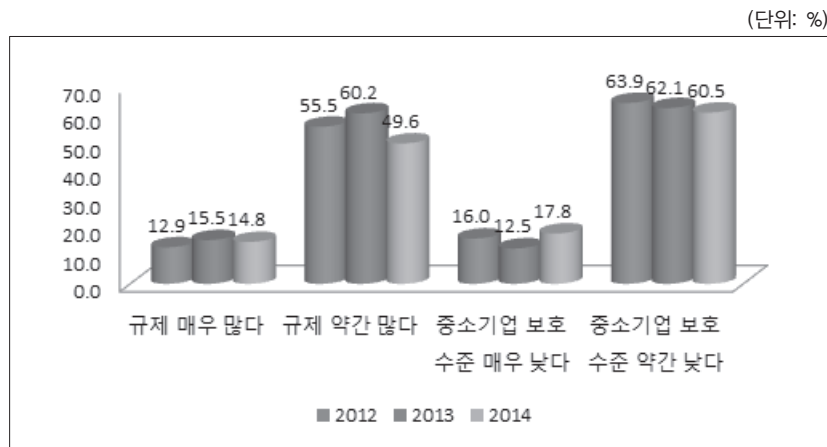
(단위: %)



▶ 우리나라에는 기업 규제가 많고 중소기업 보호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인식

- 기업 활동 관련 규제가 많다는 의견은 전년의 75.7% 대비 11.3%p 감소한 64.4%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 보호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74.6%에서 78.3%로 상승
- 규제가 많다는 의견은 광주/전라(78%), 50대(76%), 60대 이상(81%)에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 중소기업 보호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서울(84%), 40대(85%)에서 높고, 학력과 사회/정치/경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진보 성향에 가까울수록 중소기업 보호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38] 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다. 기업의 성장 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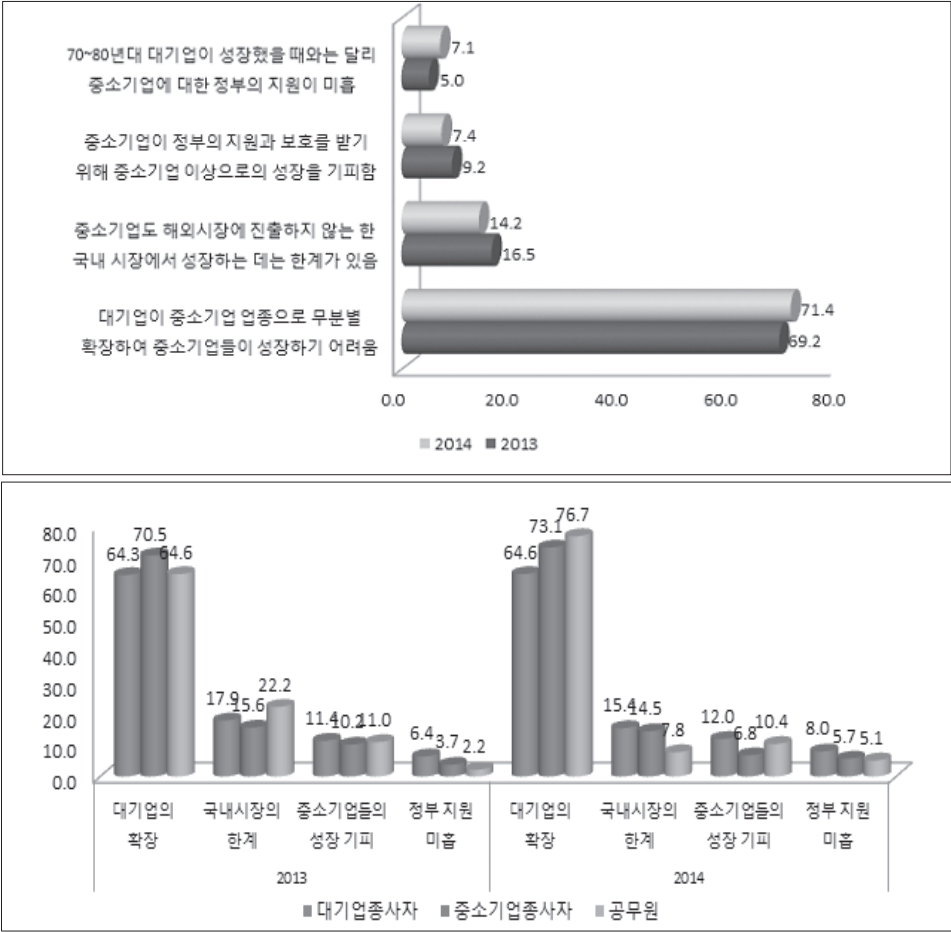
▶ 중소기업들이 중견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적은 이유가 대기업의 확장 때문이라는 인식이 대다수로 전년도와 비슷함.

- 71.4%가 대기업의 확장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특히 광주/전라(77%), 대졸(73%)에서 높고, 사회/정치/경제 관심도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 반면에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시장에서 성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은 60대 이상(19%)과 박사 이상(27%)에서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의 확장 때문이라는 응답은 중소기업 종사자(73%) 사이에서 작년보다 소폭 증

가했고, 특히 공무원 계층에서는 국내시장의 한계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폭 감소하고 대기업의 확장 때문이라는 의견이 급증하였음.

[그림 39]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사례가 적은 이유?

(단위: %)



6. 한국 사회 일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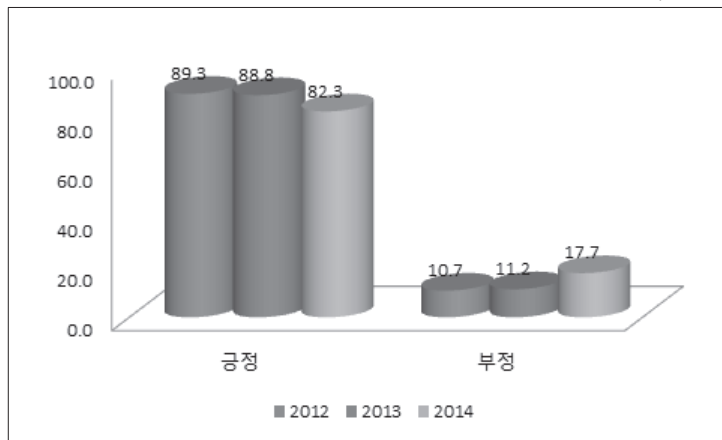
가. 평등 사상

▶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는 응답이 작년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전년 대비 6.5%p 감소하긴 했으나 82.3%에 이르는 국민들이 위 속담이 우리사회에 적용된다고 답하여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시와 불평등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시사
- 인구특성별로 보면, 20대(87%)와 30대(86%)의 젊은 세대, 보수 성향 집단(85%)에서 위 속담이 적용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속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문직 종사자(23%)에서 많고, 학력이 높아지고 연봉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40]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우리 사회에 맞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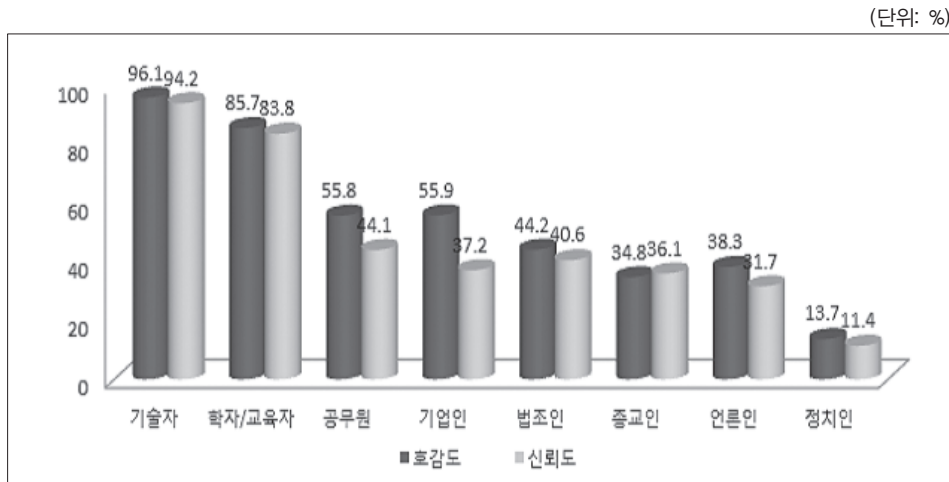


나. 직업별 호감도 및 신뢰도

- ▶ 사회 지도층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는 기술자가 가장 높고 정치인이 가장 낮음.
- 호감도와 신뢰도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호감도보다 신뢰도가 더 낮은 경향을 보임.

- 기술자의 호감도와 신뢰도는 90%대, 학자/교육자는 80%대로 타 직업군 대비 월등히 높은 반면, 정치인은 10%대에 불과
- 기업인과 공무원의 경우 호감도는 각각 55.9%와 55.8%로 긍정적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뢰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37.2%와 44.1%로 나타남.

[그림 41] 직업 호감도 및 신뢰도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40대에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호감도 및 신뢰도가 대체로 낮은 편이고 50대와 60대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직업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집단에서 사회 지도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본 조사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를 별도 추출하여 볼 수 있는데 각각 79.7%와 71.8%로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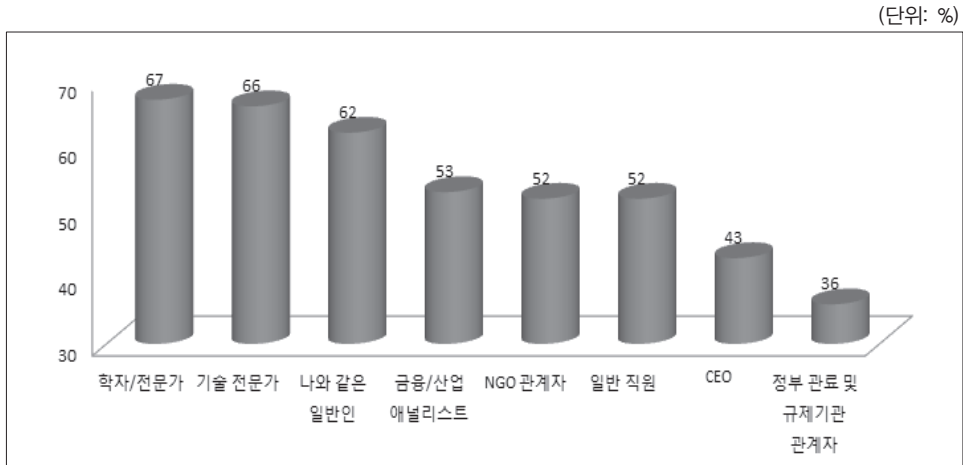
▶ 다른나라에서도 학자와 기술자를 기업인과 공무원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 수준

- 2014년 에델만 신뢰지표(2014 Edelman Trust Barometer)¹⁰⁾에 따르면, 학자 및 전문가 직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기업 CEO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임.

10) 글로벌 PR 전문 기업 Edelman은 매년 27개국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정부·기업·미디어·NGO에 대한 신뢰도, 직업별 신뢰도, 기업의 국제별 신뢰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다른나라에서는 공무원보다 기업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공무원의 자기 평가 응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그림 42] 27개국 직업별 신뢰도 평균



자료: Edelman Trust Barometer 2014, Edel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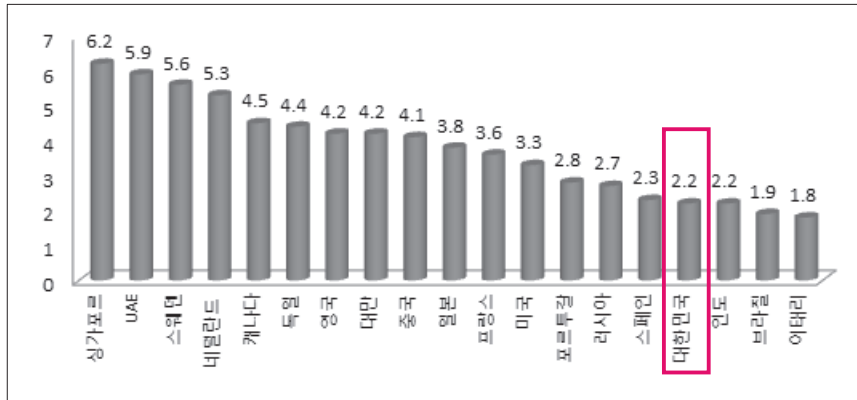
▶ 정치인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 최저 수준

- World Economic Forum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¹¹⁾ 우리나라 정치인 신뢰도는 7점 만점에 2.2점으로 148개국 중 112위를 기록, 이는 파키스탄, 자메이카, 크로아티아, 인도, 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수준
- 정치인 신뢰도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고 중동과 북유럽 국가들, 서유럽 고소득 국가들에서 높으며 남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낮은 경향을 보임.

11) 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통해 국가별 경쟁력 지수를 발표, 2013~2014년 보고서에서는 14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그림 43] 국가별 정치인 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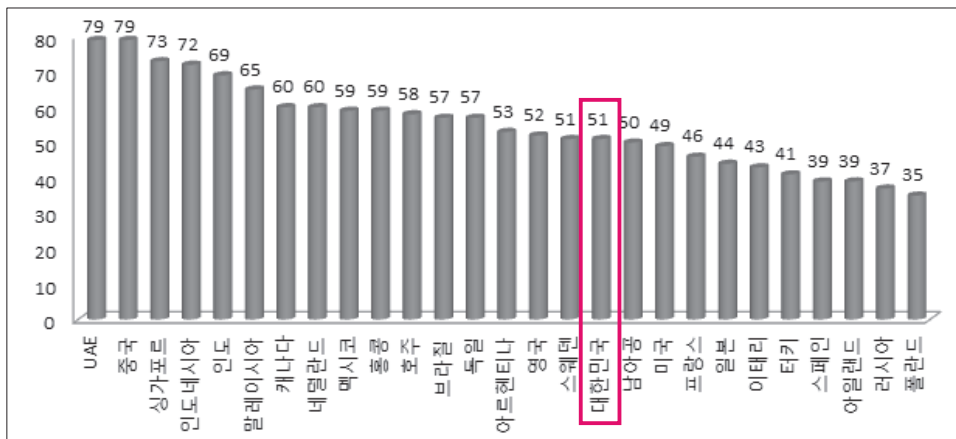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World Economic Forum

- ▶ 정부, 기업, 미디어, NGO 등에 대한 신뢰도 면에서도 한국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
 - 2014년 에델만 신뢰지표(2014 Edelman Trust Barometer)에 따르면 한국의 신뢰도 종합지수는 51%로 전체 평균 54%에 못 미침.

[그림 44] 국가별 신뢰도 종합지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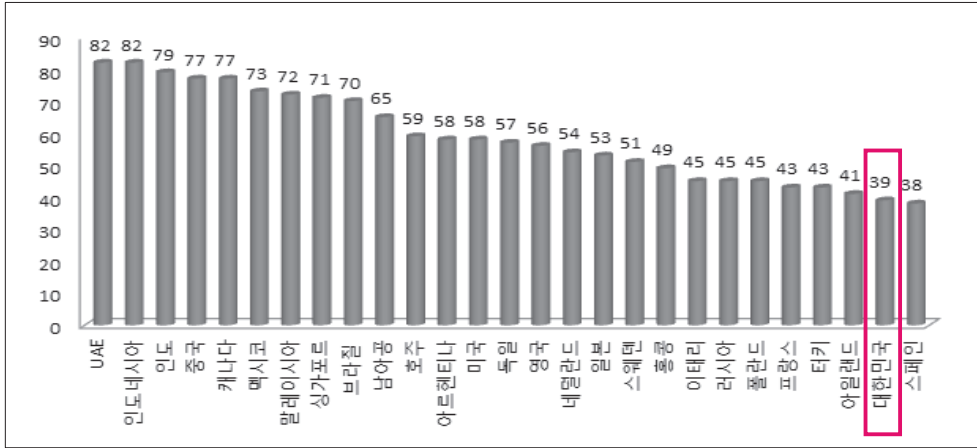


자료: Edelman Trust Barometer 2014, Edelman

- 특히 기업 신뢰도는 지난해보다 8%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58%)보다 크게 낮은 39%로, 최하위 스페인보다 1%p 높은 수준

[그림 45] 국가별 기업 신뢰도 지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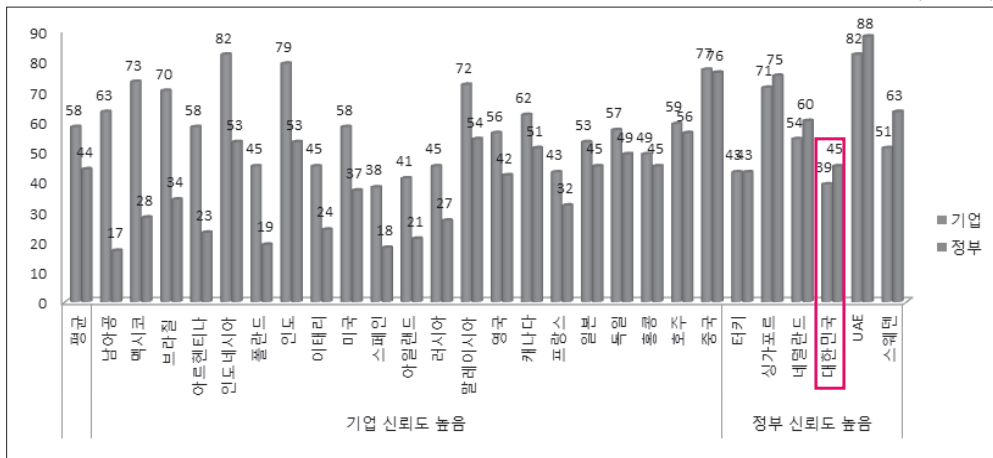


자료: Edelman Trust Barometer 2014, Edelman

- 정부 신뢰도는 45%로 조사 대상국 평균(44%) 수준, 미디어 신뢰도는 48%로 평균(52%)보다 낮은 반면, 비정부기구(NGO) 신뢰도는 70%로 평균(64%)을 넘어섬.
- 국제적으로 기업 신뢰도는 상승하고 정부 신뢰도는 하락하는 추세로 올해는 기업이 정부보다 평균 14%p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기업 신뢰도를 앞서고 있음.

[그림 46] 국가별 기업 신뢰도와 정부 신뢰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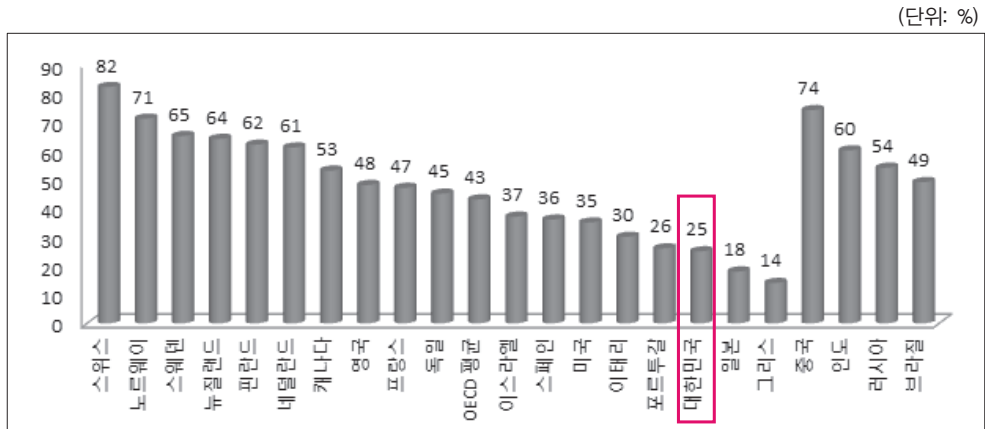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Edelman Trust Barometer 2014, Edelman

- OECD 조사¹²⁾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OECD 평균(43%)에 한참 못 미치는 25%로 OECD 35개국 중 30위이며, 주요 개발도상국가 BRICs 보다는 낮은 수준

[그림 47] OECD 및 브릭스 국가별 정부 신뢰도



자료: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다. 법과 원칙의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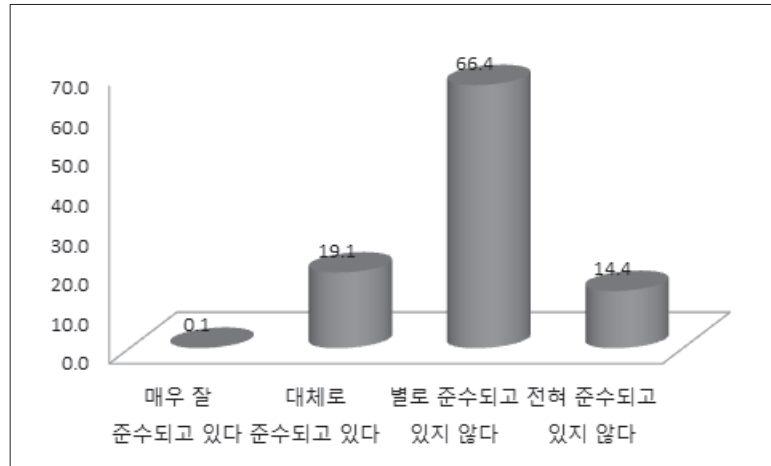
▶ 우리 사회에서 법과 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80.8%로 대다수

-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연령과 직업,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50대와 중소기업 종사자의 부정적 응답(각각 86%, 84%)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법과 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대전/충청(27%), 20대(26%), 대기업 종사자(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12) OECD는 매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지표를 조사하며, 사회 통합 부분에서 정부 신뢰도 조사를 실시함.

[그림 48] 우리 사회에서 법과 원칙이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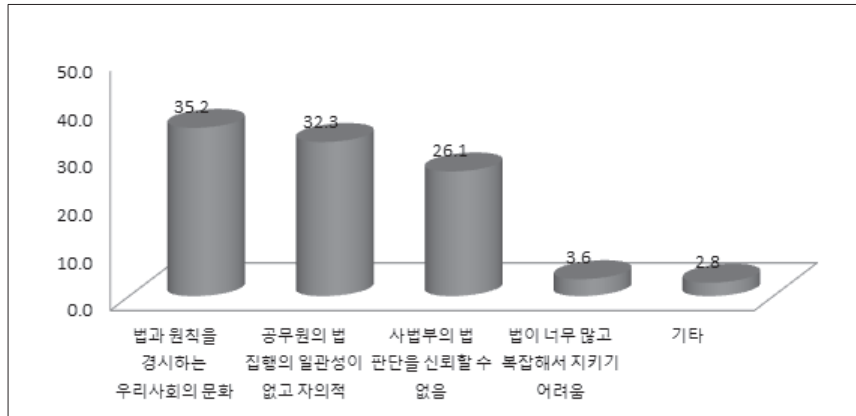


▶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우리사회의 문화와 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

-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35%) ≫ 법 집행의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32%) ≫ 사법부에 대한 불신(26%)의 순서로 나타남.
- 직업별로 의견의 차이가 커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문화(54%) ≫ 사법부에 대한 불신(25%) ≫ 법 집행의 일관성 결여와 자의성(16%)의 순서로 응답한 반면, 대기업 종사자는 사법부 불신(32%) ≫ 법 집행의 문제(31%) ≫ 문화의 문제(30%)의 순서로 응답
- 중소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공무원 법 집행의 문제로 인해 법과 원칙이 잘 안 지켜진다는 의견이 34~35%에 이르고 있음.

[그림 49]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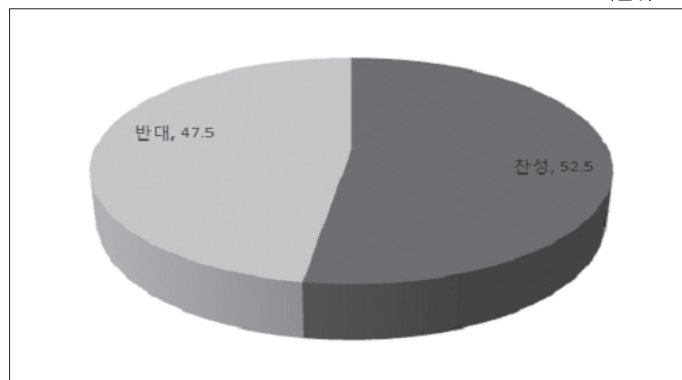
라. 도전 정신

▶ 우리 국민 중 과반이 자녀의 창업에 대해 찬성하는 편

- 자녀가 취직보다 창업을 선택할 때 찬성한다는 의견의 비율은 타 응답자 집단 대비 도전정신이 강한 남성, 30대와 40대, 자영업자에서 60~61%로 높게 나타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그림 50] 자녀가 취직보다는 창업을 하길 원한다면?

(단위: %)



-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여성(55%), 50대(53%), 60대 이상(58%), 공무원(58%)에서

높아 안정 지향적인 집단에서 창업을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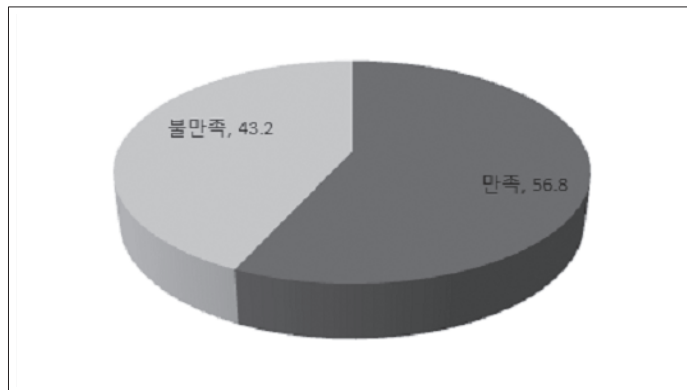
마. 국민 행복

▶ 우리 국민 중 절반가량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편

-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56.8%로 여성(59%)과 20대(63%)에서 높고, 특히 본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공무원(76%)과 전문직 종사자(69%)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불만족 비율은 40대(49%)에서 높고, 직업별로는 중소기업 종사자(51%)와 자영업자(52%)에서 높아 직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중졸 이하의 만족도(63%)가 박사 이상(51%)보다 높고 연봉 1,200만 원 이하의 만족도(58%)가 3억 원 초과(21%)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 중간 구간에서는 학력과 연봉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소폭 상승함.

[그림 51]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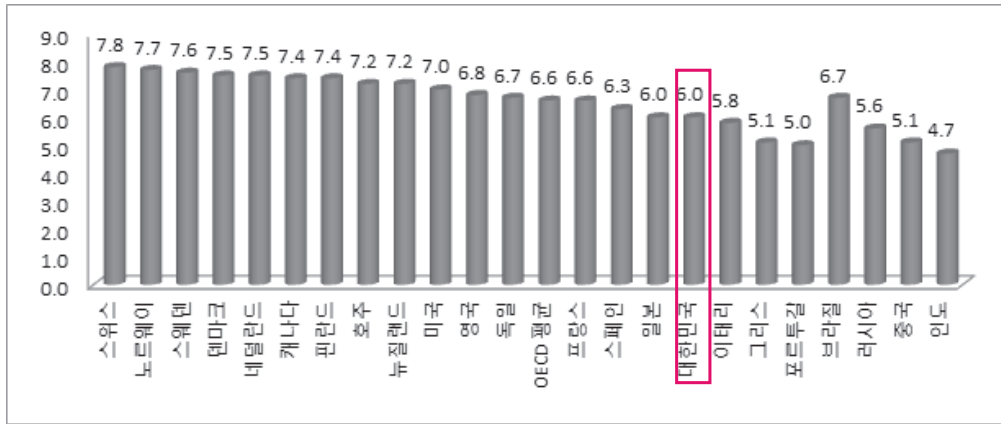


▶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

- OECD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점으로 OECD 평균인 6.6점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
- 스위스와 북유럽 국가들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영어 사용권 국가들의 만족도가 서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보다 높음.

[그림 52] OECD 및 브릭스 국가별 삶의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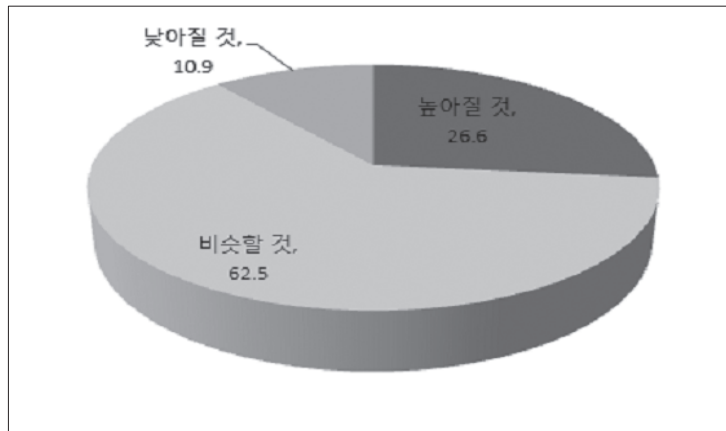
자료: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 향후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1/3 미만

- 앞으로 3~4년 내에 본인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2.5%로 가장 높고,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26.6%였으며, 낮아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10.9%였음.
-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7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봉 수준 8,800만원~3억 원과 3억 원 초과 집단은 비슷하거나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90%를 넘어 연봉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 삶의 질을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특히 20대(44%), 30대(35%), 전문직 종사자(33%)에서 높게 나타났고,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50대(16%), 자영업자(15%)에서 높고, 진보 성향에 가까울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짐.

[그림 53] 앞으로 3~4년 내 삶의 질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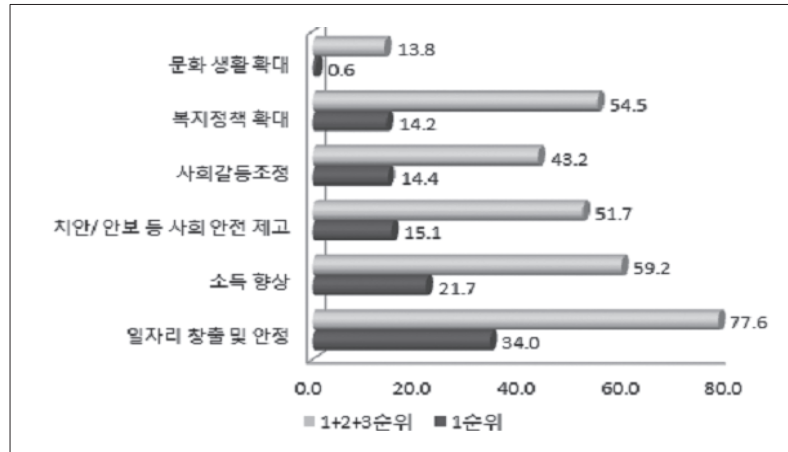
(단위: %)



- ▶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행복 달성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 및 안정
 -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순서대로 선택하게 한 결과, 일자리 창출 및 안정(34%) ≫ 소득 향상(22%) ≫ 치안/안보 등 사회 안전 제고(15%) ≫ 사회갈등 조정(14%) ≫ 복지정책 확대(14%)의 순서로 조사됨.
 - 1~3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 역시 일자리 창출과 안정(78%)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소득 향상(59%) ≫ 복지정책 확대(55%) ≫ 사회 안전 제고(52%)의 순서로 조사됨.
 - 1순위로 일자리 창출 및 안정을 선택한 응답은 2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약 38%, 공무원에서 39%로 높았고, 소득향상은 30대(28%), 40대(27%), 중소기업 종사자(27%)와 대기업 종사자(26%)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54]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과제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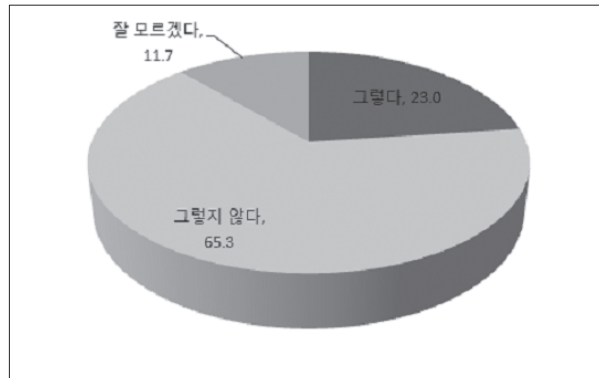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의 2/3는 본인이 우리 사회의 중산층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

- 본인의 중산층 소속 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23.0%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5.3%로 다수
- 중산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서울(30%), 남성(27%), 20대(26%), 대기업 종사자(3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 성향에 가까울수록 그 비율이 소폭 상승함.
- 중산층에 속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대(71%), 중소기업 종사자(69%), 석사졸업자(72%)에서 높게 나타남.
-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었던 반면 중산층 소속 여부에 대해서는 24.6%가 그렇다, 64.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대기업 종사자보다 부정적 인식을 보임.
- 중졸 이하의 학력보다 석사와 박사 이상 집단에서 본인이 중산층에 속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고 속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음. 이와 비슷하게 연봉 1,200만 원 이하 집단보다 4,600만 원 이하와 8,800만 원 이하 집단에서 본인이 중산층에 속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55] 나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에 속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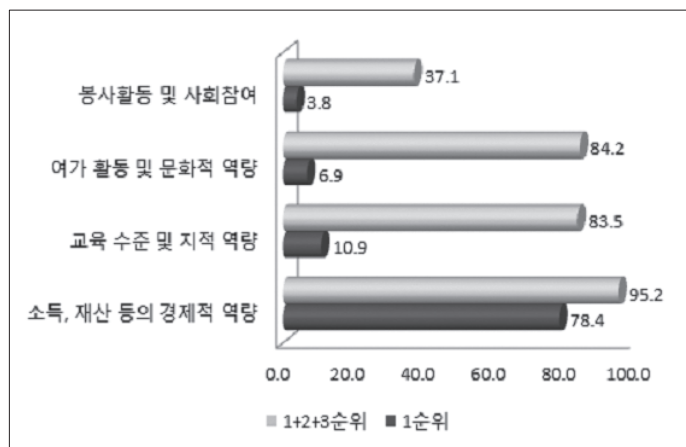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역량

- 중산층의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는 소득, 재산 등의 경제적 역량이 78.4%의 압도적 선택을 받음.

[그림 56] 중산층 기준으로 중요한 항목의 순위

(단위: %)



- 1~3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여전히 경제적 역량이 95.2%로 가장 높았으며, 여가 활동 및 문화적 역량(84%)과 교육 수준 및 지적 역량(84%)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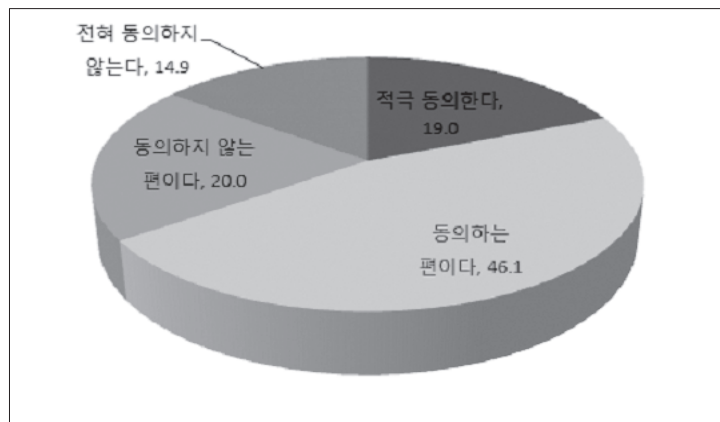
- 1순위로 경제적 역량을 선택한 비율은 서울(82%), 강원/제주(84%), 30대(84%)에서 높고, 교육 수준 및 지적 역량은 전문직 종사자(17%)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석사(7%)와 박사 이상(10%)에서는 낮은 편

7. 경제 제도와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 ▶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2/3가 동의
 -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65.1%,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34.9%로 조사됨.
 - 지역별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대구/경북(72%)에서 높고 광주/전라(51%)에서 낮게 나타나 정당 지지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 20~30대는 49.3%만이 동의하는데 비해 40대(69%), 50대(76%), 60대 이상(78%)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비중이 뚜렷이 증가

[그림 57] 새로운 국정과제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에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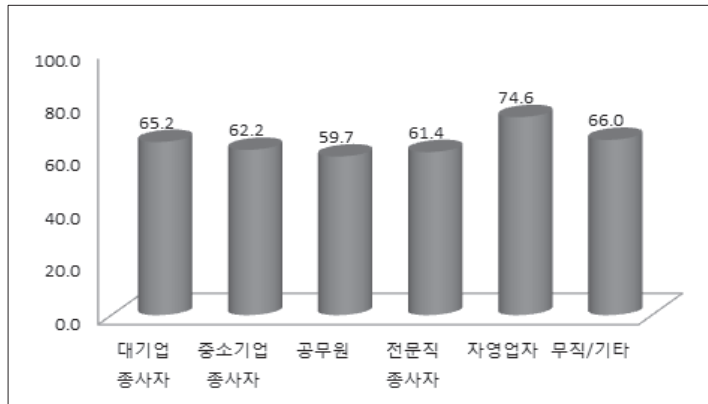
(단위: %)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75%)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많고 다른 직업에서는 평균 수준 인데 비해 오히려 공무원(60%)에서 동의하는 비중이 적게 나타남.

[그림 58] 직업별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에 동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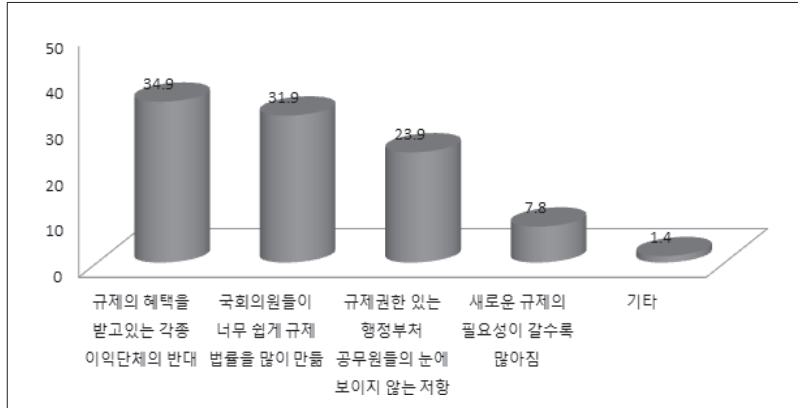


▶ 규제 총량이 계속 증가하는 까닭은 이익 단체의 반대와 국회의 규제입법 남발 때문이라는 인식이 다수

-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주창했음에도 규제 총량이 증가해온 까닭은 각종 이익 단체의 반대 때문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고, 국회에서 너무 쉽게 규제법률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9%, 규제권한을 가진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 때문이라는 응답이 23.9%로 뒤를 이음.
- 각종 이익 단체의 반대 때문이라는 응답은 남성(38%), 대기업 종사자(41%), 공무원(46%)에서 높게 나타나고 20대와 60대 이상(각각 31%)에서 낮게 나타남.
- 국회의 규제입법 남발을 지적한 의견은 여성(36%), 20대(45%)와 30대(36%)에서 많았고, 공무원들의 저항 때문이라는 의견의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높고(33%) 2~30대(18%)에서는 낮아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그림 59] 규제 총량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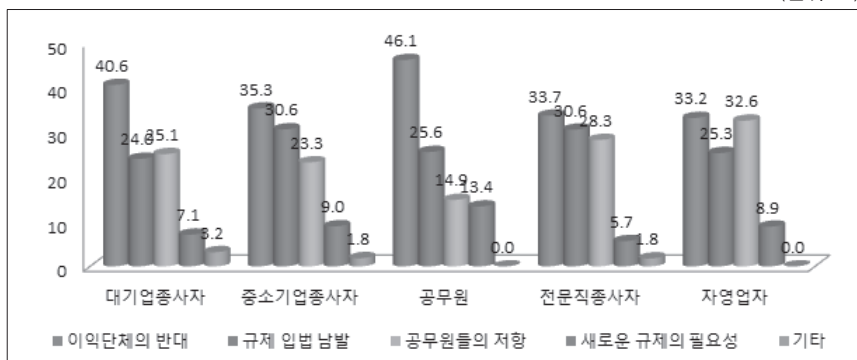


▶ 규제 총량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별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공무원은 이익단체의 반대(46%) ≫ 국회의 규제입법 남발(26%) ≫ 규제집행 부처의 저항(15%) ≫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13%) 순서로 응답
- 이에 비해 자영업자는 이익단체의 반대(33%) ≍ 규제집행 부처의 저항(33%) ≫ 국회의 규제입법 남발(25%) ≫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9%)으로 지적하여 이익단체의 저항 못지않게 행정부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음.

[그림 60] 규제 총량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직업별 인식의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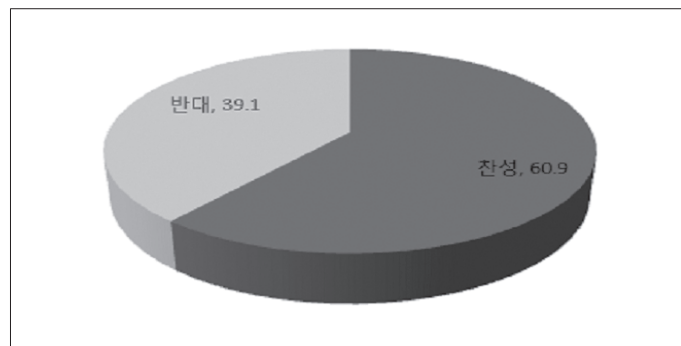
- 대기업 종사자도 이익단체의 반대(41%)에 이어 규제집행 부처의 저항(25%)을 2순위로 지적하고 있어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듯 보임.

▶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다수

- 원격진료 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9%, 반대한다는 응답은 39.1%였으며, 정치 성향에 따른 의견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찬성하는 비율은 여성(56%)보다 남성(66%), 2~30대(48%, 50%)보다 40대 이상(각각 62%, 67%, 74%)에서 높고, 직업별로는 대기업 종사자(72%)에서 찬성 응답이 높고 전문직 종사자(52%)에서 낮게 나타남.
- 원격 진료 허용으로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강원/제주 지역 주민들의 찬성 비율이 (54%) 의외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반대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61] 원격진료에 찬성?

(단위: %)





Ⅲ. 조사결과의 특징과 시사점

- ▶ 기업·기업인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반기업 정서의 수위가 여전히 높아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 경제민주화 관련 정치 공세가 잦아드는 한편,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 개혁이 강조되면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하였고 반기업 정서 또한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국민 10명 중 6명꼴로 반기업 정서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특히 공무원 계층의 기업 호감도는 지난 3년간 계속 하락하여 전체 평균보다 7%p 낮은데다 내년의 반기업 정서 전망에 대해서도 악화된다는 의견(26%)이 완화된다는 의견(4%)을 상회하는 등 반기업 정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속성이 있음.
- ▶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도전보다는 안정지향 성향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경제 IQ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한 반면에 공급자가 정한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이 많지 않음에도 많다는 의견이 59%에 이르고 있어 경제상식과 시장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필요
 - 기업가정신이 향후 경제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 현상이나 공무원 직업 선호도가 전년보다 9%p 증가하여 43%에 이르는 등 직업 선택과 같은 실제 생활에서는 도전정신보다는 안정지향 성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정년 보장과 퇴직 후 연금소득 면에서 유리한 공무원 직업 선호가 증가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문제가 오히려 공무원의 특권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 ▶ 기업경영 전략적 시사점: 임직원에서부터 기업 주변의 이해관계자에 이르기까지 기업·기업가,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반기업 정서 개선을 추진해야 함.

- 기업 종사자 중에서도 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중이 31%(대기업 종사자) ~ 35%(중소기업 종사자)에 이르고 가격이 공급자(기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만큼 내부 임직원부터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가 호감도(60%)가 전문경영인 호감도(79%) 보다 낮고 공무원 계층의 기업가 호감도(52%)가 가장 낮음을 감안하여 기업가 이미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있음.
- 반기업 정서의 구체적 원인으로 편법과 탈세를 지적한 의견은 51%인 반면 기업에 대한 이해부족은 9%에 불과하고,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려면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고(46%), 시장경제교육 확대(9%)와 사회공헌활동 강화(7%)라는 응답은 소수 의견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아울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의견이 가장 많고(43%),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책임은 25%, 준법경영은 16%이며, 사회공헌활동은 12%로 가장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정책적 시사점: 법치와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국민행복과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만큼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제도를 혁신하고 각종 비리를 척결해야 함.**

- 본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는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조사한 국제비교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속함.
- 그 까닭으로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문화(35%)와 법 집행의 자의성·일관성 결여(32%), 사법부에 대한 불신(26%)을 지적하는 본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제도의 생성, 집행 및 준수, 분쟁 및 갈등 조정의 전 단계에서 제도 실패(institutional failure)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기술자와 학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정치인은 물론이고 기업인, 공직자,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저신뢰 사회로 특징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의 확립,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 제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

▶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안정을 가장 선호하며, 국민의 약 2/3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지**

- 국민의 절반가량이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 하면서도 중산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하고 본인의 소득이 낮다는 의견(84%)이 대다수이며, 향후 삶의 질과 소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
-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 및 안정을 꼽은 의견(34%)이 가장 많은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관치 않으며, 이 때 일자리는 단지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
-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2/3가 동의하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75%)에서 가장 높고 공무원 계층(60%)에서 가장 낮음.
- 규제개혁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집단, 입법부, 행정부 순으로 응답했으나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 이를 감안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

[부록] 설문지 첨부

〈응답자 특성〉

		사례 수	비율(%)
전 체		2,000	100.0%
■ 거 주 지 ■	서 울	409	20.4%
	인천/경기	582	29.1%
	대전/충청	200	10.0%
	광주/전라	204	10.2%
	대구/경북	206	10.3%
	부산/울산/경남	316	15.8%
	강원/제주	84	4.2%
■ 성 별 ■	남 성	991	49.6%
	여 성	1,009	50.4%
■ 연 령 대 ■	2 0 대	355	17.7%
	3 0 대	386	19.3%
	4 0 대	435	21.7%
	5 0 대	394	19.7%
	60 대 이상	431	21.5%
	대기업종사자	124	6.2%
■ 직 업 ■	중소기업종사자	496	24.8%
	공무원	101	5.1%
	전문직종사자	218	10.9%
	자 영 업 자	211	10.5%
	무직/기타	851	42.5%
	중 졸 이 하	53	2.7%
■ 학 력 ■	고 졸	610	30.5%
	대 졸	1,179	58.9%
	석 사 졸	131	6.6%
	박 사 이 상	26	1.3%
	1,200만원 이하	448	22.4%
■ 연 봉 수 준 ■	1,201~ 4,600만원 이하	1,207	60.3%
	4,601~8,800만원 이하	308	15.4%
	8,801만원~3 억 이하	33	1.6%
	3억 1만원 이상 ~3 억 초과	5	0.2%
■사회/정치/경제관심도■	관 심 있 다	878	43.9%
	보 통	958	47.9%
	관 심 없 다	164	8.2%
■ 정 치 성 향 ■	진 보	517	25.8%
	중 도	1,008	50.4%
	보 수	475	23.8%
■ 대기업 호감도 ■	고 호 감 도	1,298	64.9%
	저 호 감 도	702	35.1%
■ 중소기업 호감도 ■	고 호 감 도	1,701	85.1%
	저 호 감 도	299	14.9%
■ 공기업 호감도 ■	고 호 감 도	901	45.1%
	저 호 감 도	1,099	54.9%

접근문	반기업 정서 실태조사			
<p>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국민들의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는 리서치엔리서치입니다. 이 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 현안 인식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목적이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33조 및 34조에 따라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p>				
<p>LOC. 거주지</p> <p>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p>				
<p>GEN. 성별</p> <p>① 남자 ② 여자</p>				
<p>AGE. 선생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p> <p>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p>				
<p>JOB.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p> <p>① 대기업 종사자 ② 중소기업 종사자 ③ 공무원 ④ 전문직 종사자 ⑤ 자영업자 ⑥ 무직 ⑦ 기타</p>				

A. 기업·기업인에 대한 인식

A1. 아래의 국내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주시시오.

나는 평소 “국내 000”에 대해 “000”하게 생각한다	아주 좋게 생각한다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	안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	아주 안 좋게 생각한다
A1_1. 대기업	①	②	④	⑤
A1_2. 중소기업	①	②	④	⑤
A1_3. 공기업	①	②	④	⑤
A1_4. 재벌기업	①	②	④	⑤
A1_5. 기업 전반	①	②	④	⑤
A1_6. 기업가(Entrepreneur)	①	②	④	⑤
A1_7. 전문경영인(CEO)	①	②	④	⑤

※ 기업가: 정주영(현대), 이병철(삼성), 박태준(포스코)과 같이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고 경영하는 사람

※ 전문경영인: 황창규(KT), 윤부근(삼성전자)과 같이 보수를 받는 대가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차이점: 재벌기업은 오히려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의미

▶ 대기업 예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등, 재벌기업 예시: 삼성그룹, 현대·기아차 그룹, LG그룹 등

A2. 우리나라 국민 일반의 반기업 정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없는 편이다 ④ 전혀 없다

A2_1. (A2에서 ①, ②, ③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반기업 정서의 원인을 기업 자체적인 요인과 기업 외적인 요인으로 나뉘었을 때, 어디에 원인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 자체의 원인이 더 크다
② 기업 외적인 원인이 더 크다
③ 기업 자체의 원인과 기업 외적 원인이 비슷하게 작용한다

A2_2. (A2에서 ①, ②, ③ 응답자만) 만약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력집중 ② 정경유착 ③ 한국의 평등사상
④ 기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 ⑤ 편법 세습, 탈세 등 기업 자체의 문제

A3.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올해보다 좋아질 것 ② 올해와 비슷할 것 ③ 올해보다 나빠질 것

A4. 우리나라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
②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앞장
③ 기업/기업인 인식 개선을 위한 시장경제 교육 확대
④ 법적 테두리 이상의 사회공헌활동 강화
⑤ 공정거래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감사·감독 강화

B. 시장경제 일반

B1. 귀하께서는 평소 경제 관련 상식을 주로 어디에서 접하십니까?

- ① 신문 ② 방송 ③ 인터넷
④ 서적 ⑤ 지인

B2. 귀하께서는 골목 상권에 위치한 치킨, 편의점, 빵집 등 서비스업 시장에서 동종업 간의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게 생각한다 ② 좋게 생각한다
④ 좋지 않게 생각한다 ⑤ 전혀 좋지 않게 생각한다

B3. 귀하께서는 만약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제조업체가 진출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으로 인한 기술혁신이 생기므로 바람직하다
- ② 경쟁으로 인해 값싸고 질 높은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므로 바람직하다
- ③ 중복지출비투자로 인해 자원의 낭비가 생기므로 국가 차원에서 좋지 않다
- ④ 과당경쟁으로 인해 값싼 재료 사용, 판매 후 관리 미흡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좋지 않다

B4. 귀하께서는 TV, 자동차, 라면과 같은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급자가 결정한다
- ② 수요자가 결정한다
- ③ 생산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 ④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 ⑤ 상품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 다르다

B5.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 ① 대기업 취직 ② 중소기업 취직 ③ 자영업 및 창업
④ 공무원/공공기관 취직 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C. 한국사회 일반

C1. 우리 속담에는 ‘시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얼마나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C2. 아래의 직업군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평소 “OOO”에 대해 “OOO”하게 생각한다	아주 좋게 생각한다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	안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	아주 안 좋게 생각한다
C2_1. 공무원	①	②	④	⑤
C2_2. 정치인 (대통령, 국회의원)	①	②	④	⑤
C2_3. 기업인	①	②	④	⑤
C2_4.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①	②	④	⑤
C2_5. 언론인	①	②	④	⑤
C2_6. 종교인	①	②	④	⑤
C2_7. 학자/교육자	①	②	④	⑤
C2_8. 기술자(엔지니어)	①	②	④	⑤

C3. 아래 주체에 대한 귀하의 신뢰도는 어떠한지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평소 “OOO” 을/를 “OOO”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C3_1. 공무원	①	②	④	⑤
C3_2. 정치인 (대통령, 국회의원)	①	②	④	⑤
C3_3. 기업인	①	②	④	⑤
C3_4.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①	②	④	⑤
C3_5. 언론인	①	②	④	⑤
C3_6. 종교인	①	②	④	⑤
C3_7. 학자/교육자	①	②	④	⑤
C3_8. 기술자(엔지니어)	①	②	④	⑤

C4. 우리 사회에서 법과 원칙이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잘 준수되고 있다 | ③ 별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 |
| ② 대체로 준수되고 있다 | ④ 전혀 준수되고 있지 않다 |

C41. (C4에서 ③, ④ 응답자만)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 ② 공무원의 법 집행의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 ③ 사법부의 법 판단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 ④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우리사회의 문화 때문
- ⑤ 기타

C5. 만약 귀하의 자녀가 취직보다는 창업을 하길 원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 반대

C6.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하는 편 ③ 불만족하는 편 ④ 매우 불만

C7. 앞으로 3~4년 내 삶이 질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① 높아질 것 ② 비슷할 것 ③ 낮아질 것

C8.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 추진해야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순위를 정해주세요.

- ① 소득 향상 ② 일자리 창출 및 안정 ③ 문화 생활 확대
- ④ 치안·안보 등 사회 안전 제고 ⑤ 복지정책 확대 ⑥ 사회갈등조정

C9. 귀하는 본인이 우리나라 사회의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C10. 귀하께서는 중산층의 기준으로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순위를 정해주세요.

- | | |
|--------------------|-----------------|
| ① 소득, 재산 등의 경제적 역량 | ② 교육 수준 및 지적 역량 |
| ③ 여가 활동 및 문화적 역량 | ④ 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

D. 경제발전

D1. 우리나라는 50년간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기업가정신 | ② 높은 교육 수준 | ③ 정부주도 경제개발 정책 |
| ④ 근로자의 근면성실 | ⑤ 제품의 국내·외 가격차 | ⑥ 기타 |

※ 기업가정신 :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정신

D2.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대기업 | ② 중소기업 | ③ 일반 국민의 기업가정신 |
| ④ 정부 | ⑤ 정치인 | ⑥ 기타 |

D3.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② 높은 편이다 |
| ③ 미흡한 편이다 | ④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 기업가정신 :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정신

D31. (D3에서 ③, ④ 응답자만) 미흡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창업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미흡해서
- ② 청년층의 도전정신 및 혁신역량 부족
- ③ 창업을 위한 금융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제도적 지원이 미흡
- ④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
- ⑤ 창의와 혁신의 기업문화 부재 때문에
- ⑥ 기타

D4.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현재에 비해 어떨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① 높아질 것이다 ② 비슷할 것이다 ③ 낮아질 것이다

E. 기업활동

E1. 귀하께서는 기업의 이윤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종업원 ② 소비자 ③ 주주 ④ 경영자

E2. 만약에 귀하께서 기업을 직접 경영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추구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 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향상과 이윤창출
② 소비자를 위해 값싸고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
③ 근로자의 복지 향상
④ 사회 공헌 활동

E3. 기업의 경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향상과 이윤창출
② 소비자를 위해 값싸고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
③ 근로자의 복지 향상
④ 사회 공헌 활동

E4. 귀하는 다음 중에서 어떠한 기업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②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
③ 준법경영을 잘 하는 기업
④ 윤리경영을 잘 하는 기업
⑤ 기부, 자선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

E5. 아래의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E5_1. 국내에는 대기업 수가 많다	①	②	④	⑤
E5_2. 우리나라는 기업하는 데 있어 규제가 많다 (※ JOB문항에서 ①,② 응답자만)	①	②	④	⑤
E5_3. 우리나라는 자금지원, 판로지원, 세금지원, 기술개발지원 등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수준이 높다 (※ JOB문항에서 ①,② 응답자만)	①	②	④	⑤

E6. 현재 국내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높은 수준이 아니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 ② 경제력집중이 높긴 하나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 ③ 경제력집중이 높아 문제될 수전이다
- ④ 너무 높아 위험한 수준이다

E7.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적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 이상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기 때문에
- ②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으로 무분별 확장하여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 ③ 중소기업도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한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④ 70~80년대 대기업이 성장했을 때와는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F.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

F1. 대기업 경영자들은 그들이 경제활동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여한 것에 비해 많이 받고 있다
- ② 기여한 만큼 받고 있다
- ③ 기여한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있다

F2. 귀하께서는 현재 본인이 사회나 직장에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력한 것에 비해 많이 받고 있다
- ② 노력한 만큼 받고 있다
- ③ 노력한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있다

F3. 귀하의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② 높은 편이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F4. 그렇다면 앞으로 귀하의 소득수준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① 높아질 것이다
- ②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③ 낮아질 것이다

F5. 아래의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주시요.

우리나라 “000”의 임금수준은 “000”하다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F5_1. 대기업	①	②	④	⑤
F5_2. 중소기업	①	②	④	⑤

G. 경제 제도와 정부 정책

G1. 금년 초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국정과제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G2.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강조했으나 규제 총량은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규제권한이 있는 행정 부처 공무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 때문에
- ② 국회의원들이 너무 쉽게 규제 법률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 ③ 규제의 혜택을 받고있는 각종 이익단체의 반대 때문에
- ④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 ⑤ 기타

G3.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쌍방향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는 산간 오지와 섬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원격진료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오진의 위험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원격진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 반대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1.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석사졸 ⑤ 박사 이상
3. 실례지만 귀하의 보너스를 포함한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200만 원 이하 ② 4,600만 원 이하 ③ 8,800만 원 이하 ④ 3억 이하 ⑤ 3억 초과
4. 귀하의 사회·경제·정치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별로 관심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⑤ 매우 관심이 많다
5. 귀하의 정치성향은 무엇입니까?
① 진보 ② 진보에 가까운 편 ③ 중도 ④ 보수에 가까운 편 ⑤ 보수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기업경쟁력연구센터·한국경제연구원(2008), 『반기업정서: 외국의 경험과 교훈』, 세미나 자료
김용열(2009), 한중일 기업인식의 국제비교와 영향요인, 『무역학회지』, 34(4), 2546.
대한상공회의소·현대경제연구원(20032013), 「기업호감지수(CFI)」
반성식 외(2013), 『GEM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 2012 연구보고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병기(2009),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신뢰의 정책적 함의』, 한국경제
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2006년도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중앙일보(2003), 「한·중·일 기업 및 경제활동 인식조사」
중앙일보(2006), 「한·중·일 기업 및 경제활동 인식조사」
한국개발연구원(2005), 「‘반기업정서’의 실제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
한국경제신문·KDI·시장경제연구원(2012), 「흔들리는 시장경제」
한국경제연구원(2002), 「기업, 기업인 및 경제학 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결과」
한국경제연구원(2012),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 심포지엄 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13), 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2012), 기업·기업인 이미지 및 경제인식 조사 연구
현대경제연구원(2014),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경제주평』

[해외문헌]

- Edelman(2014), *Edelman Trust Barometer 2014*
European Commission(2013), *Entrepreneurship in the EU and Beyond EU*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4),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3 Global Report*
NatCen Social Research(1983-2012), *British Social Attitudes*
OECD(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World Economic Forum(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